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도대불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林 亨 煥

2021年 8月

제주 도대불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指導教授 鄭 光 中

林 亨 煥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8月

임형환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年 8月

Present condition of Jeju ' s Todaebuls and research for utilization

Hyung-Hwan Lim

(Super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Je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eong Kwang Joong,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3
II. 제주 도대불의 소개와 특징	7
1. 제주 도대불의 명칭과 구조	7
2. 제주 도대불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 기간	12
III. 제주 도대불의 지역적 현황	19
1. 제주 도대불과 일본 옛 등대와의 비교	19
2. 제주 도대불의 잔존 현황	27
IV. 제주 도대불의 활용 방안	57
1.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57
2.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62
V. 결론	68
참 고 문 헌	71
Abstract	73

표 목차

<표 1> 도대불의 형태 분류	14
<표 2> 196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점화된 마을과 호수 현황	15
<표 3> 1969년도 제주도의 가구 및 인구 현황	15
<표 4> 도대불이 설치된 마을의 농어촌 전화사업에 의한 전등 사용 연도	16
<표 5> 도대불의 사용 기간	17
<표 6> 옛 등대 비교	27
<표 7> 조사시점의 북촌리 도대불 제원	30
<표 8> 조사시점의 김녕리 도대불 제원	33
<표 9> 조사시점의 보목동 도대불 제원	36
<표 10> 조사시점의 대포동 도대불 제원	40
<표 11> 조사시점의 고산리 도대불 제원	44
<표 12> 조사시점의 두모리 도대불 제원	46
<표 13> 조사시점의 귀덕리 도대불 제원	47
<표 14> 조사시점의 애월리 도대불 제원	49
<표 15> 조사시점의 구엄리 도대불 제원	51
<표 16> 조사시점의 용담동 도대불 제원	55

그림 목차

〈그림 1〉 고산리 도대불	10
〈그림 2〉 북촌리 도대불 상부	10
〈그림 3〉 김녕리 도대불 상부	10
〈그림 4〉 대포동 도대불 상부	10
〈그림 5〉 하도리 도대불	11
〈그림 6〉 장식 설치	20
〈그림 7〉 도모노우라항 전경	20
〈그림 8〉 상야등의 서쪽 면	21
〈그림 9〉 상야등의 남쪽 면	21
〈그림 10〉 상야등의 동쪽 면	21
〈그림 11〉 상야등 비석	22
〈그림 12〉 상야등 전경	22
〈그림 13〉 구등대 진입로	23
〈그림 14〉 구등대 전경	23
〈그림 15〉 안내판 확대 장면	24
〈그림 16〉 구등대 안내판	24
〈그림 17〉 제주 도대불의 분포도	28
〈그림 18〉 북촌리 뒷개 포구 위치도	29
〈그림 19〉 북촌리 도대불 비석	29
〈그림 20〉 북촌리 도대불 상판 구멍	30
〈그림 21〉 북촌리 도대불 전경	30
〈그림 22〉 김녕리 상세기 포구 위치도	31
〈그림 23〉 김녕리 도대불 전경	32
〈그림 24〉 김녕리 도대불 상부	32
〈그림 25〉 하도리 한 개창 포구 위치도	33
〈그림 26〉 하도리 도대불 전경	34

〈그림 27〉 하도리 도대불 기단	34
〈그림 28〉 보목동 배개 포구 위치도	35
〈그림 29〉 보목동 배개 포구 전경	35
〈그림 30〉 보목동 도대불 전경(1)	36
〈그림 31〉 보목동 도대불 전경(2)	36
〈그림 32〉 보목동 포구 전경	37
〈그림 33〉 강정동 세별포 포구 위치도	38
〈그림 34〉 강정동 도대불 전경	38
〈그림 35〉 조사시점의 강정동 포구 전경	39
〈그림 36〉 대포동 큰개 포구 위치도	39
〈그림 37〉 대포동 도대불 전경	40
〈그림 38〉 대평리 당캐 포구 위치도	41
〈그림 39〉 대평리 도대불 전경(1)	42
〈그림 40〉 대평리 도대불 전경(2)	42
〈그림 41〉 대평리 도대불 위치(터)	42
〈그림 42〉 고산리 차구내 포구 위치도	43
〈그림 43〉 고산리 차구내 포구 전경	43
〈그림 44〉 고산리 도대불 전경	44
〈그림 45〉 두모리 코지개 포구 위치도	45
〈그림 46〉 두모리 도대불 전경(1)	45
〈그림 47〉 두모리 도대불 전경(2)	45
〈그림 48〉 귀덕리 진질개 포구 위치도	46
〈그림 49〉 귀덕리 도대불 전경(1)	47
〈그림 50〉 귀덕리 도대불 전경(2)	47
〈그림 51〉 애월리 애월포 포구 위치도	48
〈그림 52〉 애월리 애월포 포구 전경	48
〈그림 53〉 애월리 도대불 전경(1)	49
〈그림 54〉 애월리 도대불 전경(2)	49
〈그림 55〉 구엄리 철무지 포구 위치도	50

〈그림 56〉 구엄리 도대불 전경(1)	50
〈그림 57〉 구엄리 도대불 전경(2)	50
〈그림 58〉 하귀리 뒷개 포구 위치도	51
〈그림 59〉 하귀리 도대불 전경	52
〈그림 60〉 하귀리 도대불 위치(터)	52
〈그림 61〉 외도동 너븐여개 포구 위치도	53
〈그림 62〉 외도동 도대불 전경	53
〈그림 63〉 외도동 복원 연대	53
〈그림 64〉 용담동 다끈개 포구 위치도	54
〈그림 65〉 용담동 도대불 전경(1)	54
〈그림 66〉 용담동 도대불 전경(2)	54
〈그림 67〉 신촌리 큰물성창 포구 위치도	55
〈그림 68〉 신촌리 도대불 전경	56
〈그림 69〉 신촌리 도대불 위치(터)	56
〈그림 70〉 아카시항 구등대 전경	59
〈그림 71〉 공항 보목동 도대불 모형	59
〈그림 72〉 제주공항 출입구 앞 건너편 과 가상의 고산리 도대불 설치 전경 ...	60
〈그림 73〉 도모노우라 상야등 거리	63
〈그림 74〉 산티아고 순례길 스탬프 북	66

【국문초록】

제주 도대불의 잔존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임 형 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정 광 중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불빛으로 어부들을 안전하게 유도한 소통의 빛이며, 무사히 물에 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희망의 빛으로 역할을 했던 도대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구에서의 위치, 일본의 옛 등대와 비교, 등대의 역할 종료 시점을 파악하고 도대불의 잔존 형태와 상태에 관해서 연구함으로써 도대불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활용방안도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으로 얻은 제주 도대불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제주 도대불의 형태적인 고유성이다. 도대불은 마을마다 각각의 환경에 맞게 마을 주민 중 특히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축조하였다. 돌을 쌓는 일에 있어서 어부들은 비전문가였기에 만들어진 모습과 형태에 있어 모든 도대불이 일정하지 않고 각기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제주만의 신호유적이라는 유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등대사에 있어 단순하면서 초보적인 기능만으로 등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부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등대인 만큼 등대 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만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는 인문 경관 요소로서의 가치이다. 도대불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을 그대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칠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혹독한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왔던 제주 어부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네 번째는 실생활에 맞게 만들어진 기능성이다. 어두운 바다에서 어부들이 야

간에 어로 활동을 하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양유산인 도대불의 잔존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용방안을 통해 도대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도대불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도대불의 잔존 현황을 바탕으로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도대불이 보존되고 활용을 되어 후세에 남겨주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도대불처럼 사라져가는 근·현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미래유산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미래유산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도대불이 미래유산 정책에 반영되어 후대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도대불, 고유성, 유일성, 기능성, 경관의 가치, 보존, 교육적·관광적 활용, 미래유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인 약 18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본토가 다 완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제주도의 화산 활동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려시대 1002년(목종 5년)과 1007년(목종 10년)에 제주도 서남해안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

지리학적으로 제주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섬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고대시대부터 해상의 중심 왕국이었던 만큼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이용한 중도 기항지로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 왔다.²⁾ 해상 교역과 활발한 어업 활동으로 어부들이 원거리 어업을 위해 사용했던 ‘덕판배’와 낚시 전용으로 사용했던 ‘낙배’, 근거리에서 해초 등을 채취하는 데 사용했던 ‘태우’ 등 어업도구들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포구가 확장되고, 그 과정에 있어 등대 설치는 필요한 작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대식 등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해 만들어졌다. 1902년 3월 인천 인천해관 해안등대국이 설치되어 등대의 도입과 등대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1902년 6월 팔미도에 처음으로 현대식 등대가 만들어짐으로 우리나라 등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06년 우도에 건설된 현대식 등대는 제주도에 있어 첫 번째이면서 한국에서는 여섯 번째 등대였다.

정부 주도의 현대식 등대와 달리, 제주의 등대 도대불은 어부들과 마을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술각(송진이 많이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관솔)”을 태워 어두운 밤에 배를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불을 피웠고 안개가 있는 날에는 쇠그릇 등을 두들겨 소리를 내어 포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이 되었다. 그

1)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7), 『제주학개론』, pp.79-82.

2)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7), 위의 책, p.30.

리고 평상시 낮에는 조업을 나간 어선들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망대로서 역할도 했다.³⁾ 이 같은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이 제주의 등대, 도대불이다.

어부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했던 도대불은 한반도 내륙의 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해양유산이다. 도대불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을 이용하여 탑 형태로 만들었거나 돌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기단을 조성하여 그 위에 다른 구조물 즉 돛대처럼 나무나 철재 앵글(angle)을 조립하여 만든 형태이다. 도대불의 위치는 바다에서 식별하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대가 높은 곳에 설치하였다.

도대불의 작은 불빛은 어부들을 안전하게 유도한 소통의 빛으로, 무사하게 물에 왔다는 안도감을 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이러한 도대불이 전기가 공급되면서 마을의 불빛이 어둠 속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고 어부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던 도대불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등대로서 기능을 잃게 되면서, 어부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게 된 도대불은 해안의 작은 돌탑으로 남아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 제주 어부들의 피와 땀이 응축되어 있고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기능적 요체로 만들어졌던 제주의 등대가 돌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연구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도대불이 처한 상황이었다.

정광중·강성기의 연구(2020)에서 도대불은 돌 문화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본 자원 인식도와 기능적 특성에서 제주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下)’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인식도는 ‘하(下)’로 분석되어 있다.⁴⁾ 정광중의 연구에서 도대불이 마을 공동체에서나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제주도를 국내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을 추진하였고, 또 1980년대 ‘신제주 건설’ 개발사업도 실행하였다.⁵⁾ 이러한 사업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항만시설 등은 지속해서 확장되었고, 해안도로는 새롭게 만들어졌

3) 강창언(2006), 「등대의 기원 제주 도대불」, p.27.

4) 정광중·강성기(2020), 『제주 돌문화경관 연구』, p.21.

5) 김태일(2018), 『제주 근대건축 산책』, p.6.

으며, 전망이 좋은 해안지역에는 상업용 건물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었다.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로 펜션이나 숙박 시설이 지어졌으며, 여러 마을에서는 주민 편의 시설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 행위가 이뤄질 때마다 도대불은 보존을 위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연대(煙臺)는 제주도 차원에서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복원시켜 왔고, 동시에 보존을 위한 관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대불은 어부와 마을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존을 위한 관리조차도 안 되어 왔다.⁶⁾

도대불이 제주 어부들의 실생활에서의 안전을 담보로 만들어졌음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어로 활동을 위해 필요했던 제주만의 독특한 형태의 신호유적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도대불은 제주의 소중한 해양유산이자 돌 문화의 요소로서도 손색이 없는 자원인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의 돌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도대불이 지닌 고유성과 가치성을 파악하고 도대불의 현황을 토대로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화산섬 제주도의 바다는 바닷가와 갯벌 바다 밭 사이에 용암으로 이루어진 ‘걸바당’이라고 부르는 바다 밭이 가로 놓여있다. 제주의 바다 밭을 두고 “산은 험하고 바다는 모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걸바당이 그만큼 거칠다⁷⁾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거친 바다에서 어부가 야간에 어로 활동을 끝마친 후 포구로 돌아올 때 용암으로 이루어진 걸바당 때문에 포구로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항로 시설이 도대불이다.

도대불은 ‘형태적’인 특성과 ‘질감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형태적’ 특성은 규격이나 형태 면에서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6) 강창언(2006), 앞의 논문, p.28.

7) 고광민(2003), 『濟州島浦口研究』, p.241.

말한다. 이는 도대불이 만들어진 상황이나 배경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바다의 환경 속에서 마을 어부들이 실제 야간 어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도대불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통 수공업자 혹은 기술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을마다 상황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 그것이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도대불의 형태와 모습이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다를 둘러싼 제주의 지형과 어업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도대불의 독특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대불의 ‘질감적’ 특성은 사용된 돌의 표면에서 잘 드러난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은 거친 질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안에 있는 돌을 그대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고, 거칠고 울퉁불퉁한 질감은 제주인의 삶의 모습과도 같다. 울퉁불퉁한 질감은 돌과 바다가 주는 자연적 요인과 이를 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조작한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도대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도대불은 제주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해양인문 경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의 개념은 크게 물리적 요소와 구성적 요소로 나뉘어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인식과 수용이라는 구성적 요소의 관점에서 도대불은 특정한 감정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익숙함과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져 도대불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한다. 도대불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과 질감적 특성은 주변에 있는 돌과 해안을 둘러 쌓고 있는 주변의 환경 그리고 포구의 경관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포구에서 볼 수 있었던 도대불은 돌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대불은 우리나라 등대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 형태로 이해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대불은 오늘날 현대식 등대처럼 전기를 공급받아 자동화로 운용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이용해서 먼바다까지 포구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였다.

이렇듯 도대불은 불을 피워서 근해에 있는 배들에 거친 걸바당을 헤치고 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순하면서 초보적인 기능만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작은 불빛만으로도 고유의 항로 표지의 기능을 해왔다는 배경을 전제로 우리 등대사에 있어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하는 중요한 신호유적이다.⁸⁾ 도대불은 제주 해양문화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등대사에 있어 새로운 기록을 필요로 하는 신호유적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도대불의 구체적인 잔존 현황을 밝히고, 앞으로 중요한 인문 자원으로써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도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검토하고 도대불의 축조 시기와 사용된 재료, 등명방법, 등명기구, 명칭, 형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대불을 이용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과 관광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현지 조사 및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법은 기존에 발행되거나 출판된 도대불을 주제로 작성한 단행본과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한 연구조사 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필요한 여러 자료는 제주대 중앙도서관 향토자료실의 협조를 받았다.

현지 조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제주 시의 외도동부터 시작하여 용담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안덕면, 서귀포의 대포동, 강정동, 보목동, 구좌읍, 조천읍 등 문헌 조사에서 도대불이 설치된 마을 포구를 대상으로 답사하였다.

더불어 연구자가 현지 조사 방법으로 일본 현지를 방문하였던 배경은 제주 도대불이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었다는 북촌리의 비문 내용을 보고, 일본에도 도대불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도대불의 외형적인 구조와 유사한 일본의 구등대(旧灯台)를 발견하게 되었다. 등탑 본체와 계단이 있는 모습이 북촌리의 도대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 현지답사는 2020년 2월 21부터 2월 24일의 일정으로 시행하였다.

8) 전해식(2005), 「우리나라 근대기 등대건축에 관한 연구」, p.17.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에는 사진 자료가 필요하거나 도대불의 치수와 크기, 규모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답사하여 직접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또한 줄자를 이용하여 실측하였다.

현장에서는 문헌 연구에서 조사했던 자료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대불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주민 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Ⅱ. 제주 도대불의 소개와 특징

1. 제주 도대불의 명칭과 구조

1) 도대불의 명칭

북촌리 도대불의 우측면에는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비문에는 대정4년 12월(大正四年十二月), 즉 서기 1915년 12월에 점등하였고 ‘등명대(燈明臺)’라고 새겨져 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도대불이라고 불렀다.⁹⁾

도대불의 어원에 대하여 이덕희 「제주의 도대불」에서 ‘길을 밝히는 불’의 道臺(도대)불과 燈臺(등대)의 일본 음인 ‘도우다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연구에는 도대불의 어원을 3가지 경우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는 높은 대를 이용하여서 불을 밝혔던 모습이 마치 배의 돛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대불(돛대불)’이라고 불렀다는 것과 다른 어원은 이덕희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배가 포구에 들어올 때 그 뱃길을 밝혀주었다고 해서 ‘道臺(도대)불’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원은 일본어 ‘도우다이’에서 왔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도대불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북촌리의 비문에 ‘燈明臺(등명대)’라고 쓰인 것과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불렸던 ‘燈明臺(등명대)’이다. 조천읍 신촌리에서는 도대불을 ‘관망대’라고도 불린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강영봉의 「기억 속의 제주 포구」에서 도대불의 어원의 유래를 ‘도대’라는 말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とうだい’ (등대)가 쓰이면서 이 말이 제주어처럼 굳어져서 된 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는 일본말이며, ‘도대불’은 등대에 켜 불이라는 뜻이지만 결과적으로 등대를 말하는 것이다. 또 ‘등명대(燈明臺)’는 등댓불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등명대에서 가운데 명(明)자를 빼면 곧 등대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주도의 도대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1915년 북촌리 도대불에서 발견된 비

9) 이덕희(1997), 『제주의 도대불』, p.119.

문의 내용이다. 이 비문에는 ‘燈明臺(등명대)’라고 음각(陰刻)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무시한 채 ‘도대불’이라고 불렀다¹⁰⁾는 것으로 중간 기항지의 역할과 주민들이 불렀다는 이름에서 유추한다면 ‘도대불’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도대불이 보여주는 외형적 모습은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계단이 있는 도대불. 둘째로는 등롱을 가지고 있는 도대불. 셋째로는 본체가 철재로 만들어진 도대불이다. 이 구분의 기준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첫 번째, 계단이 있는 도대불은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초기에 만들어진 도대불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소나무의 송진이 많이 영긴 가지·옹이 부분인 ‘솔각’· 각종 생선 내장을 썩힌 다음 끓여서 짠 기름인 ‘구진지름’이나 ‘비근다리지름’¹¹⁾· 상어의 간에서 짠 기름· 고등어 기름 같은 생선 기름인 어유(魚油)나 ‘갯늬물지름’와 같은 채유(菜油)¹²⁾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도대불은 한경면 두모리, 조천읍 신촌리, 구좌읍 김녕리, 애월읍 애월리, 서귀포 보목동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계단이 있는 도대불이다.

두 번째, 등탑 본체 위에 등불을 보호하기 위해 등롱을 가지고 있는 도대불로 등을 걸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용한 재료는 주로 석유를 사용한 호롱불이나 납포등을 걸어서 안내 역할을 했다. 여기에도 등을 걸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다리가 필요했다. 안덕면 대평리, 한경읍 고산리 도대불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도대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철 구조물이 있는 도대불로 일정한 높이까지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철재 앵글을 사용하여 등탑 본체를 만든 것이다. 철재 구조물 위에는 철재 합을 두었으며, 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대불이 사용한 재료는 석유나 카바이드이다. 이러한 사례는 애월읍 하귀리, 구엄리, 구좌읍 하도리 도대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 (선사·역사)』, p.312.

11) 강창언(2006), 앞의 논문, p.28.

12)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p.99.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로는 돌을 이용하여 원통이나 사각 형태를 만들어 솔각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관솔등¹³⁾이 있다. 조막등은 조막이라는 주먹 크기의 단지에 어유나 채유를 담아 솜으로 만든 심지를 이용하여 불을 켜던 등이다. 크기로는 조막등과 비슷한 각지등은 옹기나 자기로 기름 보관용 통을 만들어 석유¹⁴⁾와 심지를 이용하여 불을 밝힌 등이다. 이들에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각지등에 불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 유리병이 있는 남포등 또는 호롱등으로 발전한다. 더불어 카바이드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밝힌 카바이드 등도 있다.

도대불이 불을 밝혔던 시간은 해 질 무렵 고기잡이를 위해 출항하기 전에 어부들이 불을 밝혔거나 고기잡이 나간 집에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돌아가면서 불을 밝혔다¹⁵⁾. 또는 어부들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불을 켜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불을 끄는 관리 업무를 맡겼다.

도대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날과 조업을 하는 날에만 켜져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조업을 나가지 않았어도 항상 불을 켜 놓았던 도대불¹⁶⁾은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과 사고 없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부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조업 나간 날만 불을 밝혔다. 인근 어부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바다 받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바당 때문에 그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낚시로 조업을 하였으며 배도 크기가 작았다. 이런 어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매일 불을 밝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2) 도대불의 구조

〈그림 1〉과 같이 도대불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등탑 기단과 등탑 본체, 등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대불의 하부구조는 해안가 주변의 바위를 이용하거나 조선 시대의 통신 수단인 연대의 구조물을 이용하였다. 등탑 기단과 등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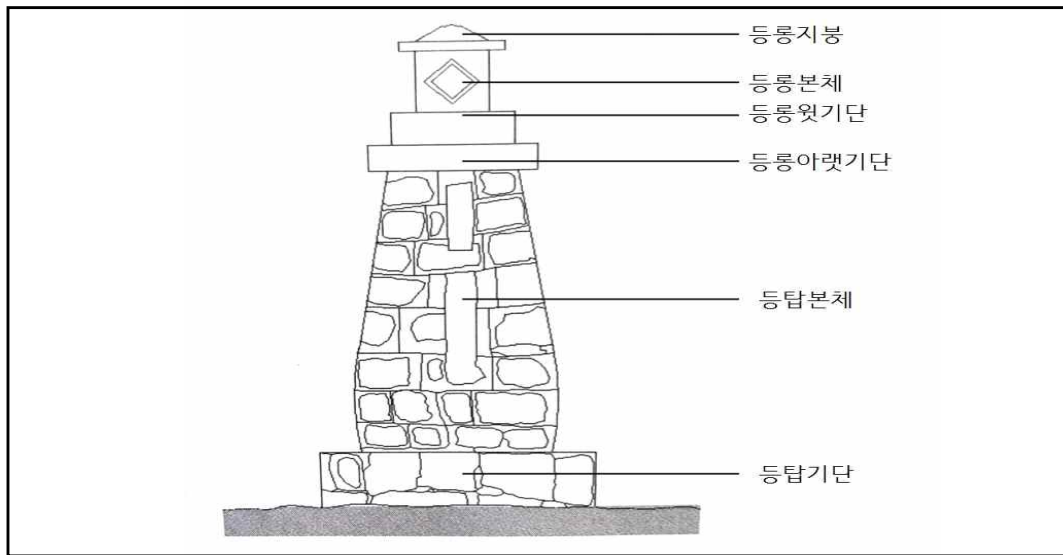
13) 강창언(2006), 앞의 논문, p.28.

14) 제주문화원(2008), 「제주시 옛 등대 애월리 배무송이 소금밭 조사보고서」, p.19.

15) 제주문화원(2008), 위의 보고서, p.12.

16) 이덕희(1997), 앞의 책, p.105.

본체는 제주도의 현무암을 가지고 전통적인 층 쌓기 방식으로 쌓아 올렸다. 등탑의 본체는 쌓아 올라가면서 크기 변화를 줌으로써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불을 켜거나 보관하는 등롱은 기단과 본체, 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고산리 도대불에서 등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고산리 도대불

출처: 김영일(2018), 제주 근대건축 산책, p.57 토대로 재작성.

도대불의 외부에 설치된 계단은 불씨나 등불을 가지고 올라가서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모리 도대불을 시작으로 신촌리, 김녕리, 애월리 및 보목동 도대불¹⁷⁾에서는 불을 직접 피웠다는 것을 채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북촌리 도대불 상부

〈그림 3〉 김녕리 도대불 상부

〈그림 4〉 대포동 도대불 상부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출처: 김영일(2018), P.57.

17) 이덕희(1997), 앞의 책, p.125.

북촌리 도대불 <그림 2> 와 김녕리 도대불 <그림 3> , 대포동 도대불 <그림 4> 의 상부를 살펴보면, 불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덕희 「제주의 도대불」에 있는 16기의 도대불 중 솔각이나 어유 또는 채유를 사용하여 불을 밝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대불의 수는 9기 정도이다.

초기의 도대불이 솔각과 어유, 채유를 사용하여 직접 불을 피웠다는 흔적과 채록이 남아있다. 물고기 기름이나 송진 등을 불의 원료로 사용하였기에 넓은 판 같은 형태의 구조물 위에 재료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방법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등롱 구조로 되어 있는 도대불은 고산리 도대불과 대평리 도대불에 서만 볼 수 있다. 도대불 상부에서 솔각이나 어유, 채유 등을 태워서 직접 불을 밝혔다는 방법을 통해서, 또 도대불이란 명칭에 있어 ‘등’이라 하지 않고 ‘불’자를 사용하고 있다. 두 가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불을 밝혔던 부분의 명칭이 ‘불집’이라고 명칭 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제시해 본다.

철제 앵글로 만들어진 도대불로는 구엄리 도대불, 하귀리 도대불, 하도리 도대불이 있다. 여기에는 철탑 상부에는 <그림 5> 와 같은 통을 설치하여 불을 보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 하도리 도대불
출처: 강영봉(2008), p.88.

2. 제주 도대불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 기간

1) 외형적 특징

도대불의 형태에 관해서 이덕희(1997)의 연구에서는 형태를 분류하지 않았지만,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에서 발행한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Ⅰ)」이나 강창언(2006)의 연구에서는 도대불의 형태를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의 연구에서는 제주 도대불의 형태를 원뿔형, 원통형, 사다리꼴형, 상자형, 표주박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뿔형은 밑은 넓고 위는 좁은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측면에는 각이 없는 형태이고, 원통형은 위아래 지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시각적으로는 원통처럼 보이는 형태이다. 사다리꼴형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각이고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을 이룬다. 밑부분에서 중간 허리까지는 점점 좁혀 쌓고 중간 허리에서 윗부분까지는 같은 폭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면서 쌓은 형태이다. 상자형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지만, 높이가 낮아 시각적으로 상자처럼 보이는 형태이고, 표주박 형은 표주박을 세워놓은 듯한 형태이다.

강창언(2006)의 연구에서는 사다리꼴, 원뿔 형태, 삼각 형태, 첨성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사다리꼴 형태를 북촌리 도대불처럼 사각 형태를 기본모양으로 하고 그 위에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축조방식인 층 쌓기를 하였다. 원뿔 형태는 등탑 본체의 밑면을 원으로 하여 축조하는 형태로 상부에 윗면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삼각 형태는 원뿔형과 같이 하부에서는 원을 기본으로 하여 축조하여서 윗면 없이 뾰족하게 끝까지 축조한 형태이다. 첨성대 형은 밑면이 원형이면서 원통의 등탑 본체를 가지고 있고 허리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과 마찬가지로 강창언도 유사한 분류로 도대불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원뿔형을 삼각형으로 원통형을 원뿔형으로 사다리꼴형과 상자형을 사다리꼴로 표주박 형을 첨성대 형으로 약간의 용어 선택의 차이만 보인다. 그리고 온평리에서 축조한 도대불은 첨성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강창언(2006)의 도대불의 형태 분류에서 첨성대 형이라고 분류한 것

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연구자는 도대불의 분류를 평면적인 분류와 입면적인 분류로 나누고자 한다. 평면적인 분류는 등탑 본체의 밑면을 기준으로 한다. 평면적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위에서 본 평면적인 모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원형’이다. 제주도 마을의 인명과 가축·재산을 지키기 위해 액을 막아주고 허한 곳을 보강해주는 방사탑의 형태의 밑면이 원형이다. 두 번째는 ‘사각형’이다. 제주도에 서 최초로 만들어진 북촌의 도대불 형태의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이다. 입면적인 분류는 측면에서 보이는 형태가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삼각형’, ‘사다리꼴’, ‘혼합형(삼각형+사다리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법을 이용하면 제주에 있는 도대불 16개 전부를 분류할 수 있다.

〈표 1〉은 제주 도대불을 위에서 보는 평면상의 외형과 측면 상의 외형을 토대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평면에 나타나고 있는 형태는 원형과 사각형이다. 입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삼각형과 사다리꼴형, 혼합형(삼각과 사다리꼴형)으로 파악 된다.

평면적 원형은 기단이 원과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서 귀덕리, 김녕리, 용담동, 대평리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평면적 사각형은 기단이 네모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서 4곳 이외의 도대불에서 확인된다. 김녕리 도대불 또한 재축조되기 이전에는 사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면적 삼각형은 용담2동의 방과제 끝에 있는 도대불로 삼각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삼각 형태의 도대불에서는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젓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입면적 사다리꼴형은 정확한 사다리꼴은 아니며 높이 변에 곡선이 있는 것이다. 등탑 기단부에서 중간 허리까지는 약간 좁혀 쌓아 올라가서 중간 허리에서 본체 상단부까지는 같은 폭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등탑 본체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있다. 입면상으로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보여 둔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멋을 보이는 형태이기도 하다. 입면적 혼합형은 등탑 기단 부분은 사다리꼴 형태로 쌓고 그 위에 삼각형 구조물로 연결되는데, 이는 복잡하지 않고 사용된 재료에서 시대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이다.

〈표 1〉 도대불의 형태 분류

구분	형태	사례	비고
평면	원형	용담동(1), 김녕리, 귀덕리, 대평리	
	사각형	북촌리, 두모리, 고산리, 보목동, 외도동, 용담동(2), 강정동, 대포동, 애월리, 구엄리, 하귀리, 신촌리, 하도리	
입면	삼각형	용담동(1)	
	사다리꼴형	북촌리, 김녕리, 보목동, 강정동, 대포동, 귀덕리, 두모리, 외도동, 용담동(2), 애월리, 고산리, 신촌리, 대평리	
	혼합형	구엄리, 하귀리, 하도리	철재 구조물

출처: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제주 도대불에서 특히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구조물은 계단이다. 불을 피우거나 등(燈)을 걸기 위해 별도의 사다리가 필요했던 도대불로 계단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부의 구조물인 계단을 제외한다면 〈표 1〉의 분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도대불의 사용 기간

이덕희(1997)는 도대불이 어두운 밤에 뱃길의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마쳤던 원인을 「제주의 도대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등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또는 구엄리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아시아 방송국 안테나의 불빛이 들어오면 서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도대불이 있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 전등을 사용하는 시점을 파악함으로써 도대불이 등대로서 역할을 한 기간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전기에 관련한 사업의 도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1964년 8월 28일 국회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상정되어, 196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2월 30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농어민의 생산력 증강 및 생활 향상 도모가 목적이다. 또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공사비 부담에 있어 배전시설 공사비는 한전이, 내선시설 공사비는 전기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제주에서 최초로 시작한 마을은 1965년 한림읍 협재리와 서귀포 하효리였다. 그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으나, 내선시설 공사비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마을 출신인 재일교포들이 내선 공사비를 성금을 보내줌으로써, 이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한국전력공사, 2004).

〈표 2〉 1960년대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점화된 마을과 호수 현황

연도	마을 수	호수	점등 수	비고
1965	2	903	4,412	
1966	9	98	12,713	
1967	7	3,374	13,519	
1968	9	1,175	4,724	
1969	18	6,520	26,534	
합계	45	12,070	61,902	

출처: 한국전력공사(2004), 제주도 전력사, p.270 작성.

〈표 2〉에서 보듯이 1965년도 두 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사용한 가구 수가 903호였다. 또 사용한 점등 수는 4,412개이다. 두 개 마을이었지만 많은 가구에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다음 연도인 1966년도에는 9개 마을에서 98가구가 전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69년도에는 18 마을에서 6,520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아 연도가 진행되면서 전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969년도 제주도의 가구 및 인구 현황

지역별	가구 수	인구수	비고
제주시	20,356	97,681	
북제주군	27,434	123,589	
남제주군	29,917	148,835	
계	77,707	370,105	

출처: 제주도(1970), 통계연보, p.14 토대로 재작성.

〈표 2〉는 60년대 진행되었던 제주도의 전화사업 완료된 현황으로써 1969년 도까지 농어민 생산력 증강 및 생활 향상 도모하기 위한 전화사업이 완료된 가구 수가 12,070가구이다. 이는 〈표 3〉에서 제주도 내 1969년 12월 기준 총가구 수 77,707과 비교해 볼 때 총가구 수 대비 전기 사용 가구 수의 비율이 15.5% 정도가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화사업은 제일교포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지원이 마을마다 확대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70년 한 해에만 제주도 전화사업으로 전기 공급률은 31.9%로 높아졌다. 1965년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4년이 지난 1978년에 이르러 농어촌 지역 전화사업은 100% 완료되어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표 4〉 도대불이 설치된 마을의 농어촌 전화사업에 의한 전등 사용 연도¹⁸⁾

번호	명칭	소재지	전기 점화식 시기	비고
1	고산리 도대불	한경면 고산리	1972년도	
2	두모리 도대불	한경면 두모리	1971년도	전화사업 기념비 설립연도
3	귀덕리 도대불	한림읍 귀덕리	1970년 4월 13일	
4	애월리 도대불	애월읍 애월리	1970년 3월 2일	
5	구엄리 도대불	애월읍 구엄리	1973년 10월 28일	
6	하귀리 도대불	애월읍 하귀리	1972년도	전화사업기념비 설립연도
7	신촌리 도대불	조천읍 신촌리	1968년 5월 20일	
8	북촌리 도대불	조천읍 북촌리	1973년	전화사업기념비 설립연도
9	김녕리 도대불	구좌읍 동김녕리	1972년 11월 16일	
10	하도리 도대불	구좌읍 하도리	1971년 2월 1일	
11	외도동 도대불	제주시 외도2동	1970년도	
12	용담동 도대불	제주시 용담동	1965년 6월 말	
13	보목동 도대불	서귀포시 보목동	1969년도	추정
14	강정동 도대불	서귀포시 강정동	1969년도	추정
15	대포동 도대불	서귀포시 대포동	1969년도	추정
16	대평리 도대불	안덕면 대평리	1968년 12월 6일	

출처: 한국전력공사(2004), pp.271-283 토대로 작성.

〈표 4〉에서 서귀포 보목동, 강정동, 대포동 지역의 점화식 연도를 추정으로

18) 한국전력공사(2004), 『濟州電氣 77年 濟州道電力史』, pp.271-283.

1969년을 정한 이유는 한전의 외선공사 설계 단가와 제주도가 발주한 단가가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1967년도 당시 서귀읍 토평리와 보목리가 유찰되고, 1969년 7월 2일 구자춘 도지사가 내선공사를 본토 업체에 주겠다고 강력히 대응하여 재추진되었다. 한국전력공사(2004)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추진이 시행된 1969년으로 추정하였다.

〈표 4〉는 제주에서 추진되었던 전화사업의 결과로써 도대불이 있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이다(한국전력공사, 2004). 도대불이 있는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인 전기 점화식 시기는 마을에서 점등식 및 축하연 등 기념식과 전화사업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연도를 기준으로 전기 사용일을 작성하였다.

〈표 5〉 도대불의 사용 기간

번호	명칭	축조연도	전기 점화식 시기	사용 기간
1	고산리 도대불	1941년 ¹⁹⁾	1972년도	31년
2	두모리 도대불	1930년 이전	1971년도	41년
3	귀덕리 도대불	1937년 이전	1970년 4월 13일	33년
4	애월리 도대불	1930~35년	1970년 3월 2일	35~40년
5	구엄리 도대불	1950년 이전	1973년 10월 28일	23년
6	하귀리 도대불	1970년 재축조	1972년도	2년
7	신촌리 도대불	1947년 7월	1968년 5월 20일	21년
8	북촌리 도대불	1915년 12월	1973년	58년
9	김녕리 도대불	1961년	1972년 11월 16일	11년
10	하도리 도대불	1969년 7월 15일	1971년 2월 1일	2년
11	외도동 도대불	1940년경	1970년도	30년
12	용담동 도대불	1957년 이전	1965년 6월 말	8년
13	보목동 도대불	1937년경	1969년도	32년
14	강정동 도대불	1945년	1969년도	24년
15	대포동 도대불	1942년	1969년도	27년
16	대평리 도대불	1929년경	1968년 12월 6일	39년

출처: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한국전력공사(2004), 토대로 재작성.

〈표 5〉에 ‘축조연도’라고 표시한 연도는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이

19)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7.

제시한 「제주도 도대불 일람」 표를 토대로 도대불이 축조되는 시점을 참조하였으며, 전기 점화식 시기는 <표 4> 에서 도대불이 있는 마을에 전등을 사용하는 시점을 자료로 한 것이다. <표 5> 에 있는 고산리 도대불의 경우 1941년에 축조되었고 한경면 고산리에는 1972년도부터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도대불이 안내자로서 이용되었던 기간이 31년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축조연도가 1915년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북촌리 도대불도 조천읍 북촌리에 전기가 들어온 연도가 1973년이기 때문에 도대불을 58년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도대불도 축조된 연도와 전기를 사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활동 기간이 추정된다. 궁극적으로 <표 5> 는 도대불이 뱃길의 안내 역할을 담당했던 사용 기간을 추론함으로써 제주의 여러 도대불이 등대로써 그 기능을 상실한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Ⅲ. 제주 도대불의 지역적 현황

1. 제주 도대불과 일본 옛 등대와 비교

북촌리 도대불이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건립되었다는 비문 내용이 있었기에 도대불의 형태가 제주도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제주 도대불 중 선행 연구 자료²⁰⁾에 의하면 축조 시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북촌리 도대불이다. 북촌리 도대불은 일본 다이쇼(大正)천황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도대불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은 고산리 도대불이다. 고산리 도대불은 일본인에 의해 축조되었다는 채록²¹⁾이 있다. 이처럼 두 도대불이 일본 또는 일본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 일본에도 뱃길의 안내자 역할을 했던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대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태일(2018)의 「제주 근대건축 산책」이란 단행본에 일본의 옛 등대와 관련된 내용과 사진이 실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옛 등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일본에 있는 다수의 옛 등대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는 북촌리 도대불의 외형적인 구조와 유사한 일본 아카시항(明石港) 구등대(旧灯台)도 있었다. 아카시항 구등대의 등탑 본체의 육중한 사다리꼴 모습이 북촌리의 도대불과 유사하였다. 또한, 사다리꼴 형태와 등롱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없는 고산리 도대불과 유사한 도모노우라(鞆の浦) 상야등(常夜灯)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일본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일본 현지 조사는 2020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히로시마현(広島県)의 도모노우라를 동년 2월 24일에는 효고현(兵庫県) 아카시항을 답사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구등대와 상야등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등대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및 관리 방법 그리고 운

20) 이덕희(1997), 앞의 책, p.119,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06.

21)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7.

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규모와 크기에 대해서도 실측하였다.

1) 도모노우라(鞆の浦) 상야등(常夜燈 Joyato Stone Lighthouse)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역에서 내려 도모코행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가면 도모노우라에 도착한다. 도모노우라는 세토내해(瀬戸内海)의 중앙에 있어 기항지 주변영을 누린 항구 도시이다. 일본의 에도시대 도시에 온 것처럼 옛 모습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 사이에 있는 골목은 전통적인 거리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민속 마을처럼 주민들은 옛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 고풍스럽고 슬로 시티처럼 한적하고 여유가 있는 도시이다.

〈그림 6〉과 같이 주민들이 옛 풍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대문위를 장식하는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골목 입구나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에는 작은 신사가 세워져 있었다. 신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듯 옛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도모노우라는 주변에 많은 섬이 있어 섬을 오가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림 6〉 장식 설치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7〉 도모노우라항 전경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의 해안 중심에 상야등(常夜燈)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야등 구조는 하부를 받쳐주고 있는 기단과 등탑 기단, 등탑 본체, 등롱으로 형성되어 있다. 불을 밝히기 위해 등롱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림 8〉처럼 등탑 본체 한쪽 면에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어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가 실측한 바에 따르면, 하부를 받쳐주고 있는 기단은 길이 5.1m의 정사각형으로 약 5m 높이로 축조되어 있다. 그리고 길이 5.4m의 둘레석이 설치되어 있다. 등탑 기단은 2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기단부의 외부 형태는 정사각형이며, 길이는 각각 3m와 2.3m로 높이는 0.3m였다. 등탑 본체는 아랫부분이 길이 2.0m의 정사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화강암²²⁾으로 축조되었으며, 높이 0.45m의 돌을 7단으로 쌓아 올린 사다리꼴 형태이다. 등륜은 기단과 등륜,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기는 실측하지 못하였다.



〈그림 8〉 상야등의 서쪽 면 〈그림 9〉 상야등 남쪽 면 〈그림 10〉 상야등 동쪽 면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등탑 본체 각각의 면에는 현판과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림 9〉 같이 남쪽 면과 북쪽 면에는 현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내용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신(神)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서쪽 면에는 1859년이라고 축조연도를 표시하였으며, 〈그림 10〉 처럼 동쪽 면에는 옛 지명과 축조의 주체인 부유한 상공업자 마치슈(町衆)라는 단체명이 새겨져 있다. 상야등 옆에는 〈그림 11〉 과 같이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석에는 바닥에서 5.33m의 기단 위에 높이가 7.5m로 화강암으로 축조한 상야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상야등 주변은 넓은 광장이 만들어져 있고 근처에는 큰 창문이 있는 전통의 가옥 카페가 있어 상야등과 함께 예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다. 도모노우라 상야등

22) 〈그림 11〉 비문의 내용.

은 기본적으로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로 어부들의 무사 귀환의 의미도 있지만, 주변의 절과 신사가 많이 있고 등탑 본체의 면에 부착된 현판의 의미를 근거로 볼 때 조업을 나간 어부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이나 신사 앞에 항상 불을 밝혀 놓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시설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대변하듯이 <그림 12> 과 같이 현장을 답사할 때는 기도하는 마을 사람도 볼 수 있었다.



<그림 11> 상야등 비석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12> 상야등 전경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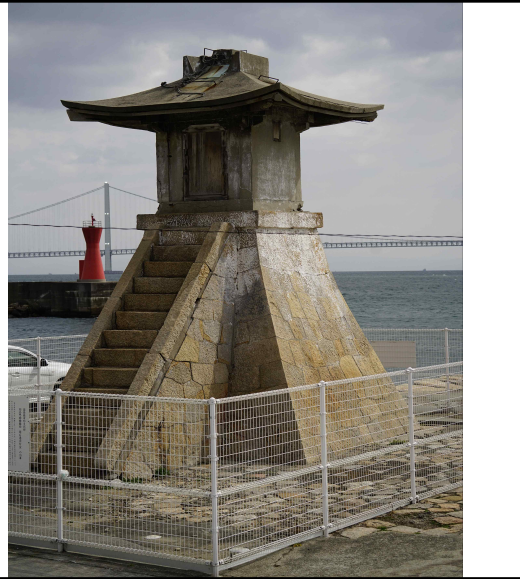
2) 아카시항 구등대(旧灯台, Akashi Port Old Lighthouse)

일본의 아카시항 구등대는 효고현 아카시시(明石市)의 항구인 아카시항에 있다. 아카시항 구등대는 돌로 만들어진 등대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다. 등대가 있는 아카시시는 도모노우라와는 다르게 현대화된 도시이다. <그림 13> 과 같이 구등대로 가는 약 100m는 5층 정도의 건물과 해안의 높은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들어가는 도로변에서는 구등대를 발견할 수 없다. 방파제의 높은 벽 안으로 들어가서야 넓은 공간에 우뚝 서 있는 구등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14> 에서 알 수 있듯이 구등대는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었다. 등대 주변은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낚시하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해안으

로 연결된 방파제 끝에서 본 구등대의 모습은 뱃길의 안내자로서 잘 드러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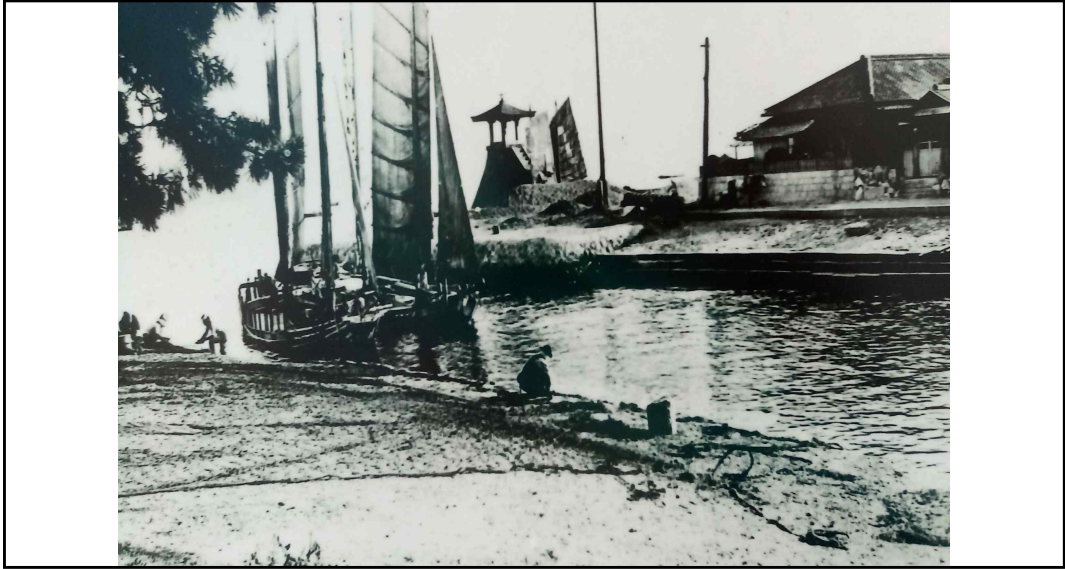
〈그림 13〉 구등대 진입로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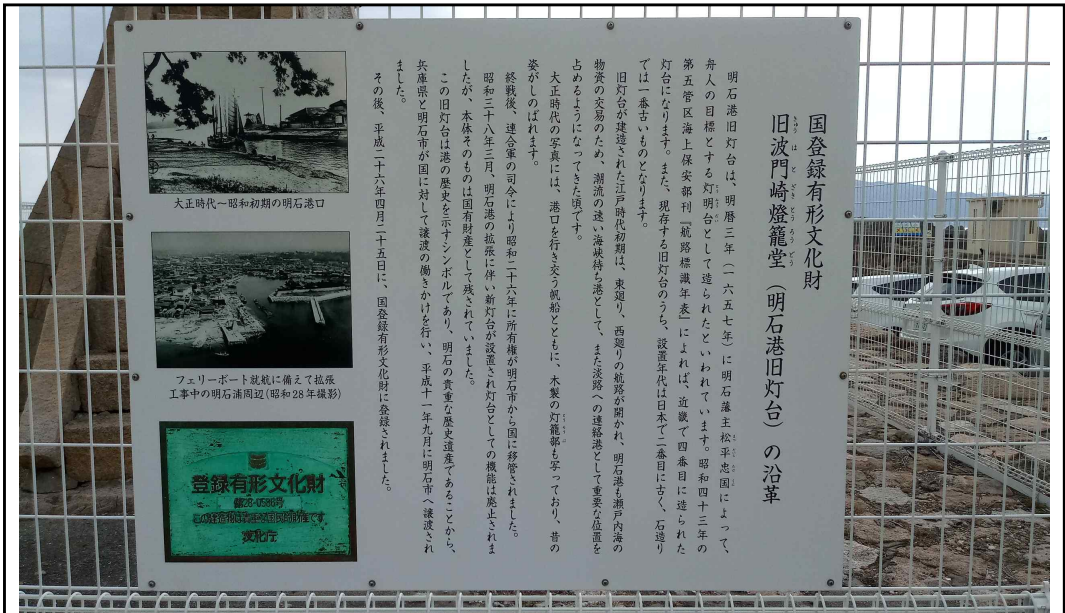
〈그림 14〉 구등대 전경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14〉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등대의 형태는 외부에서 등롱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등탑 본체로 구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등탑의 기단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등탑 본체가 축조되어 있으며 등롱 본체는 시멘트로 복원되어 있다. 〈그림 16〉의 안내판에 설명된 것처럼 다이쇼(大正)시대 때 찍었던 사진 〈그림 15〉에는 등롱 본체가 목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등탑 본체 하부의 길이는 약 4.8m 정도인 정사각형이며 등탑 본체는 높이는 0.4m 정도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잘 다듬어진 돌을 촘촘히 10단으로 쌓아 올렸으며 사다리꼴형의 육면체이다. 등롱 기단은 약 2.0m 정도이다. 외부에는 등롱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며, 폭은 약 1.5m로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였고 단수는 13단, 단의 높이는 약 0.3m 정도다. 계단 아랫부분의 첫 단은 본체에서 옆면으로 약 2.5m 정도가 떨어져서 시작되고 있다.



〈그림 15〉 안내판 확대 장면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16〉 구등대 안내판
출처: 2020년 2월 연구자 촬영.

〈그림 16〉의 안내판의 내용²³⁾은 다음과 같다.

구 하토자키 등용당 (아카시항 구등대)

아카시항 구등대는 1657년에 아카시영주인 마즈다이라 타다쿠니에 의해 선원들의 항로목표인 등명대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쇼와(昭和) 43년(1968년)에 제5관구 해상 보안부에서 만든 항로표인 연표 의하면 간사이(関西) 지방에서 4번째로 만들어진 등대라고 한다. 현존하는 구등대 중에 설치 연도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으며, 둘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첫 번째로 오래되었다. 구등대가 만들어진 에도시대(1603년 ~1868년) 초기에는 동쪽과 서쪽에서 돌아오는 항로가 열려서 이 아카시항구도 세토내해(瀬戸内海)에서 물자나 무역을 하던 곳으로 조류가 빠른 협곡의 대기 항구로써 근처 아와지섬의 연락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이쇼시대(1912년~1926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구등대는 목조로 만들어진 등용 부분을 볼 수 있다.

전쟁(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연합군의 명령에 따라 쇼와 26년 소유권이 아카시시(明石市)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등대의 역할은 소멸하였으나 몸체로써는 중요한 문화재이고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아카시시의 중요한 유산이다.

구등대는 효고현과 아카시시가 권리 이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 헤이세이(平成) 12년(2000년) 9월에 아카시시로 권리가 이전되었다. 그 후 헤이세이 16년(2003년) 4월 25일 국가등록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3) 제주 도대불과의 비교

북촌리 도대불과 아카시항 구등대, 그리고 고산리 도대불과 도모노우라 상야 등의 형식과 크기, 외형상 이미지 그리고 질감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고산리 도대불과 도모노우라 상야등은 계단이 없이 등탑 자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산리 도대불이 등탑 기반과 등탑 본체, 등롱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도모노우라 상야등에서도 등대 구조의 형태가

23) 안내판 내용 이해와 번역은 당시 현지 거주 중이었으며, 현지 조사에 동행한 임지원에게서 도움을 얻었음.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산리 도대불과 도모노우라 상야등은 평면상 형태에 있어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등탑을 축조하였으며, 입면 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사다리꼴 육면체를 취하고 있다. 다만 등룡 모습에서는 도모노우라 상야등은 지붕이 크지만, 고산리 도대불의 지붕은 작은 것처럼 여러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등룡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등룡 기단과 등룡 본체, 등룡 지붕으로 구분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등룡과 달리 규모와 크기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등탑 기단의 길이가 도모노우라 상야등은 3m이고, 고산리 도대불은 약 1.9m이다. 기단 하부의 길이 차이는 전체 등탑에서 볼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질감이 주는 느낌에서도 차이가 있다. 고산리 도대불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돌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려서 투박한 질감을 보여주었다면, 도모노우라 상야등에서는 잘 다듬어진 돌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선을 맞추어 쌓아 올려 깔끔한 질감의 멋을 보여주고 있다. 불을 밝히려는 방법에서도 고산리 도대불은 별도의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도모노우라 상야등에서는 등대 한쪽 면에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어 일정한 높이에서 내부의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촌리 도대불과 아카시항 구등대는 유사하게 불을 점등하기 위한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 두 등대 모두 등탑의 본체는 평면상 형태에 있어 정사각형을 바탕으로 축조되었으며, 입면적 형태도 사다리꼴 육면체로 축조되었다. 또한, 기단이 없이 암반 위에 바로 등탑 본체를 축조하였다. 따라서 외부 형식과 형태에서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등룡에 있어 아카시항 구등대는 시멘트로 복원되어 있으나 북촌리 도대불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어 사라진 상태이다. 규모에서는 아카시항 구등대는 등탑 하부를 길이 4.8m로 쌓아서 높이가 4m 정도이고, 북촌리 도대불은 등탑 하부가 길이 2.3m로 시작하여 높이는 2.5m로 만들어졌다. 계단 폭도 아카시항 구등대는 1.5m며, 북촌리 도대불은 0.6m이다. 질감이 주는 느낌에서는 북촌리 도대불이 현무암이 가지고 있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투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아카시항 구등대는 표면이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소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양과 크기에 있어 일정하지 않은 돌을 사용하고 있어 도모노우라 상야등보다는 질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 6〉 옛 등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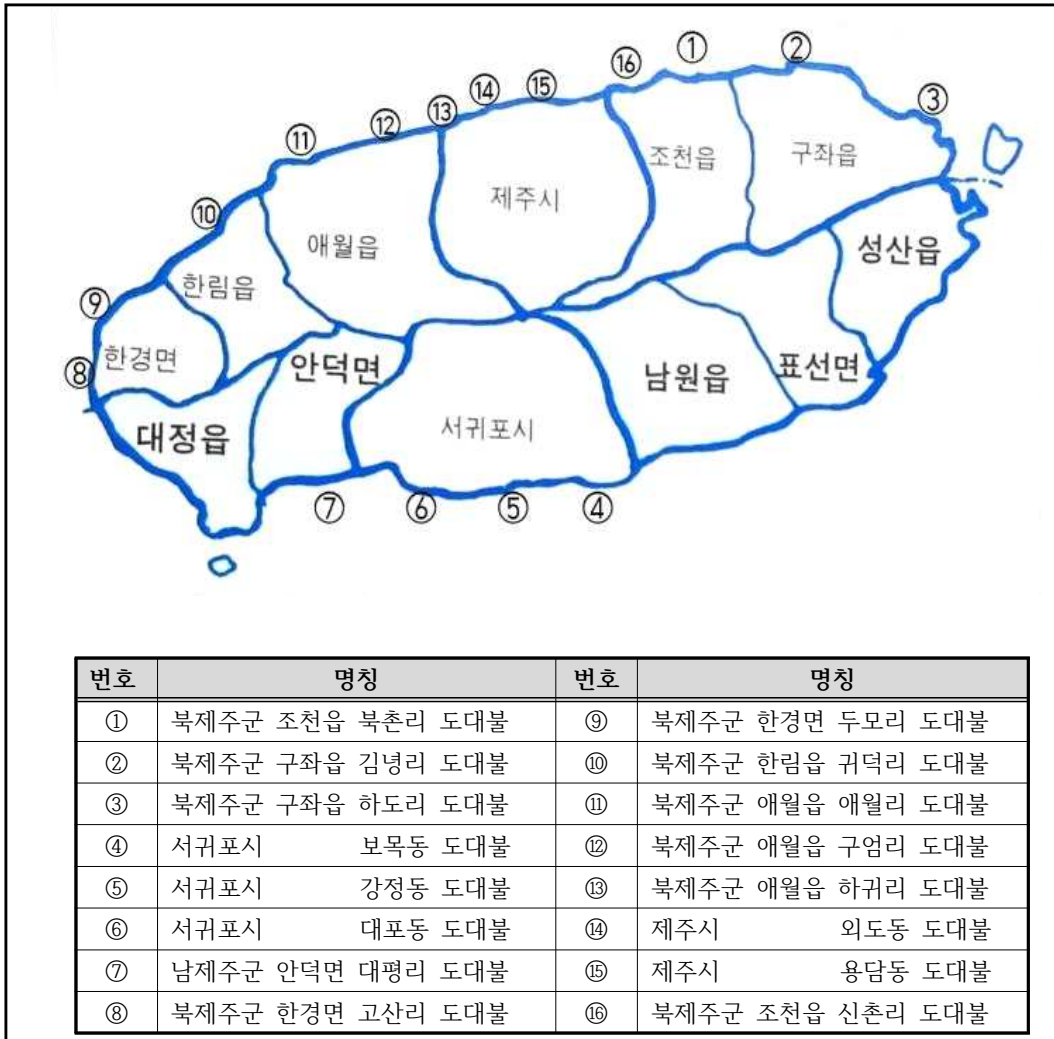
명칭	도모노우라 상야등	고산리도대불	아카시항 구등대	북촌리도대불	
축조연도	1859	1941	1657	1915	
등탑 기초 형태	5m 높이 단	1.8m 높이 단	암반	암반	
등탑 기단	단수	2단	없음	없음	
	크기	3m와 2.3m			1.9m
등탑 본체평면	형태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크기	3m	1.2m	4.8m	2.3m
등탑 본체입면	형상	사다리꼴형 육면체	사다리꼴형 육면체	사다리꼴형 육면체	사다리꼴형 육면체
	높이	약 3.2m	2.2m	약 4m	2.5m
등롱 유무	유	유	유(원형 목조)	무	
등롱 접근 방법	내부 사다리	별도 사다리	계단	계단	
석재	종류	화강석	현무암	화강석	현무암
	크기	일정	불규칙	불규칙	불규칙
	상태	면을 가공함	가공하지 않음	면을 가공함	가공하지 않음
질감	깔끔함	울퉁불퉁함	약간 깔끔함	울퉁불퉁함	

출처: 현지조사(2020,2)에 의해 작성.

〈표 6〉에서 연구자는 제주 도대불에서 평면적으로 보이는 정사각형 형태나 입면 상으로 보이는 육면체 형상은 일본 옛 등대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축조연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옛 등대가 시대적으로 이전에 축조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의 도대불은 주로 일제강점기하에 축조되었고, 일본 천황의 즉위 기념을 위해 만들어진 점, 나아가 일본인의 조연 때문에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외부 형태는 오래전부터 일본 옛 등대가 가지고 있던 형태의 일정 부분을 영향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제주 도대불의 잔존 현황

제주 도대불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로 이덕희(1997)의 제주 도대불이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서와 함께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의 도대불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도대불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1997년도 도대불의 분포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제주 도대불의 분포도(1997)

출처: 이덕희(1997), p.111 토대로 재작성.

1) 북촌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북촌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18〉에서 보듯 ‘뒷개’이다. ‘뒷개’는 돈지코지가 감싸고 있으며 안개·중개·밖개로 구성된 제주의 전형적인 포구다. 뒷개로 붙여진 이유는 마을의 뒤쪽 즉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뒷개의 왼쪽에 있는 ‘안백구들²⁴⁾’이란 암반 위에 도대불이 있다.

24)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19.



〈그림 18〉 북촌리 뒷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22.

도대불에 관한 내용이 〈그림 19〉의 비석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57cm, 너비 27cm이다. 비문의 내용은 “어즉위기념등명대(御即位紀念燈明臺) 대정4년12월(大正四年十貳月)”이다. 즉 일본 대정 천황(大正天皇)의 즉위(即位) 4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으며, 대정 4년은 서기 1915년이고 그해 12월에 축조하였다. 명칭은 ‘등명대’라는 것이다. 이처럼 비문을 통해 등명대의 축조 이유와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축조연도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된 옛 등대의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점에서 비문은 큰



〈그림 19〉 북촌리 도대불 비석

출처: 2019년 11월 연구자 촬영.

의의²⁵⁾가 있다. 비문에는 ‘등명대(燈明臺)’라고 새겨져 있었지만, 북촌리 주민들은 ‘도대불’이라고 불렀다. 도대불의 형식은 정사각형의 평면 위에 사다리꼴 육면체의 모습이다. 불을 밝히기 위한 재료나 등불을 가지고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있다. 처음에는 솔각, 송진, 생선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²⁶⁾. 〈그림 20〉에서 보여주

25)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19.

는 구멍은 등피를 걸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름 7.5cm의 구멍이다.



〈그림 20〉 북촌리 도대불 상판 구멍
출처: 2019년 11월 연구자 촬영.

〈그림 21〉 북촌리 도대불 전경
출처: 2019년 11월 연구자 촬영.

〈표 7〉 조사시점의 북촌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사각 형	사다리꼴 형			183	220				194		60
				~ 200	~ 242				~ 260		~ 70

출처: 현지조사(2019, 11)에 의해 작성.

〈표 7〉 과 같이 도대불은 기단이 없고 바로 등탑 본체를 축조하였다. 하단의 폭을 220cm로 시작한 본체의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260cm이다. 등탑 본체가 해안의 암반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림 21〉 속에 있는 계단은 내부로 들어가는 형식이며, 이런 형식으로 축조된 도대불은 북촌리와 신촌리 두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불에 대해 관리는 리 사무실의 급사²⁷⁾, 또는 리장 하인²⁸⁾을 고용하여 관리하였으며, 불을 밝혔던 시간과 일수는 기존 연구서마다 차이가 있다. 이덕희(1997)는 매일 밤에 밝혔다고 했으며, 제주문화원

26)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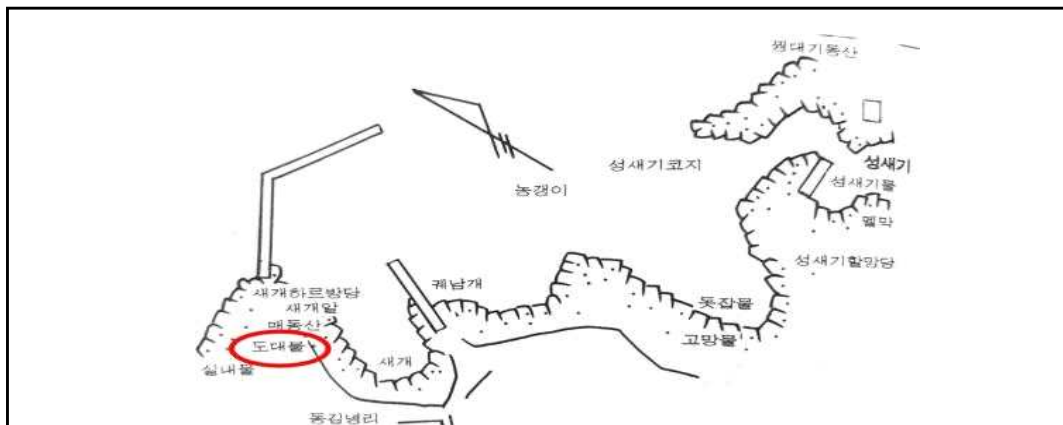
27) 이덕희(1997), 앞의 책, p.119.

28) 제주문화원(2008), 위의 보고서, p.20.

(2008)에는 고깃배가 나갈 때만 불을 밝혔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풍선 7~8 척²⁹⁾을 위해 도대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인도 두었고 매일 밤에 불을 밝혔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매일 밤에 불을 밝혔다는 이덕희(1997)의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촌리 도대불은 1948년 4·3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도대불 상부의 비석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있다. 이 탄흔으로 글자가 소실되어 비문 내용은 남아있는 글자들을 기초하여 추측 판독한 것이며, 상부에 있었던 시설도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도대불은 1973년³⁰⁾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뱃길의 안내자 역할을 잃게 되었다. 현장조사를 하던 날에 4·3 해설사 인솔로 단체팀이 북촌리 도대불을 답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해설사는 도대불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4·3 사건과 관련된 총탄 자국만을 해설했다. 만약 북촌리 도대불과 관련 있는 해설을 하였다면 방문객들에게 도대불의 의미를 전달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김녕리 도대불



〈그림 22〉 김녕리 상세기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232.

도대불이 있는 김녕리 포구 이름은 〈그림 22〉에서 보듯 ‘성세기’이다. 성세

29)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20.

30) 한국전력공사(2004), 앞의 책, p.289.

기 이름의 어원은 알 길이 없으나, 평대기 동산에서 뻗어 나간 성세기코지가 감싸고 있다. 포구의 왼쪽에 있는 매동산 암반 위에 도대불이 자리 잡고 있다. 성세기 포구는 ‘별치 후리는 노래’로도 유명한 곳³¹⁾이다.

도대불은 <그림 23> 과 같이 둥근 모습은 여인의 치마폭과 비슷하고 위로 가면서 불룩한 듯 좁아지는 완만한 곡선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선의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조형미와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961년³²⁾에 개축되어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 처음의 도대불은 1910~1920년대 일본인에 의해 장방형 모양으로 높이 120cm 정도 만들어진 도대불³³⁾이었다. 현재 잔존하는 것은 1960년 태풍에 의해 허물어졌다 다시 축조한 것이다. 제주문화원(2008)에 의하면 그 당시 하루의 일당 500원이었으며, 동원되었던 인부 수는 8명이고 공사 기간 14~15일이 걸렸다. 축조 방법과 이용되었던 자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상부에는 <그림 24> 과 같이 45cm 간격으로 정사각형으로 구멍이 있다. 용도는 불을 보호하거나 등을 걸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23> 김녕리 도대불 전경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그림 24> 김녕리 도대불 상부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31) 강영봉(2008), 앞의 책, p.59.
32) 이덕희(1997), 앞의 책, p.121.
33) 제주문화원(2008), 앞의 보고서, p.15.

〈표 8〉 조사시점의 김녕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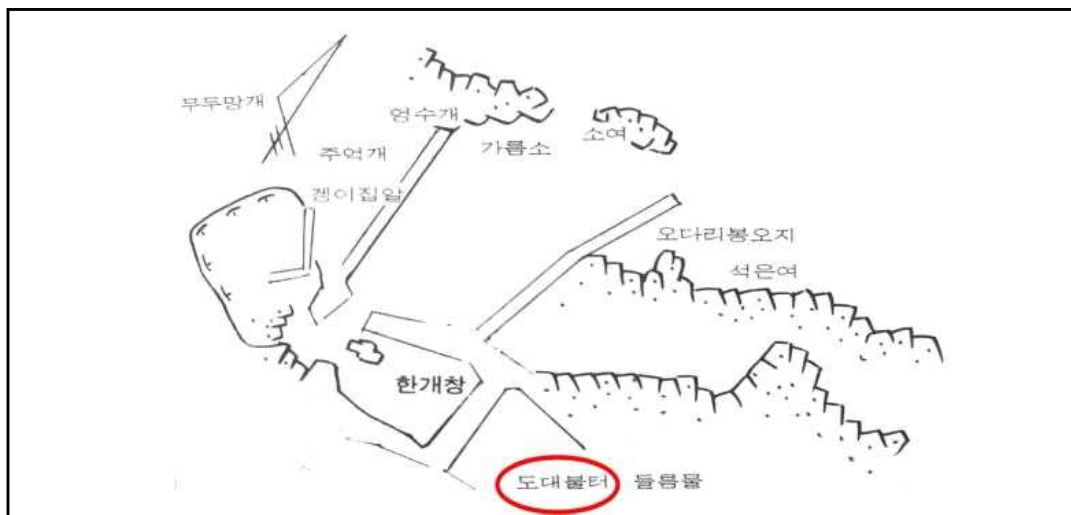
형태		규모(길이)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지름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원형	사다리꼴형			105 ~ 120	310 ~ 330				310		60 ~ 170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탑 본체는 기단 없이 지름 330cm의 원형으로 축조하여 높이 310cm로 만들어진 도대불이다. 도대불 관리는 어부들이 직접 했으며, 등화 시간도 출항 전 불을 밝혔다가 귀항하여 불을 껐다.

동김녕리에는 1972년 11월 16일 전기 점화식³⁴⁾이 있어 전기를 사용함으로 그 역할은 상실되었다.

3) 하도리 도대불



〈그림 25〉 하도리 한개창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255.

34) 한국전력공사(2004), 앞의 책, p.275.

도대불이 있는 하도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25> 에서 보듯이 ‘한개창’이다. ‘한개창’은 오다리봉오지에서 연결되는 석은여와 소여가 감싸고 있으며 하도리내 8개의 포구 중 크고 중심이 되는 포구로, 별방진의 길목으로 터 잡고 있다. 한개창의 동쪽에 도대불이 있었다.

하도리 도대불은 1969년 7월 15일 마을 청년회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림 26> 과 같이 도대불은 평면이 사각형인 기단 위에 등탑 본체는 삼각형의 철재 구조물로 만들어 연결되어 있다. 도대불 규모는 높이 120cm 정도의 기단 위에 높이 200cm³⁵⁾의 철재 본체를 설치하여 총 높이가 320cm이다. 도대불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1971년 2월 1일 전기 점화식³⁶⁾이 이루어져 짧은 기간 동안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 현재는 <그림 27> 에서 보듯이 복원된 별방진 동쪽 성벽 모퉁이의 중간 부분에 도대불 기단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림 26> 하도리 도대불 전경
출처: 강영봉(2008), p.88.

<그림 27> 하도리 도대불 기단
출처: 2019년 11월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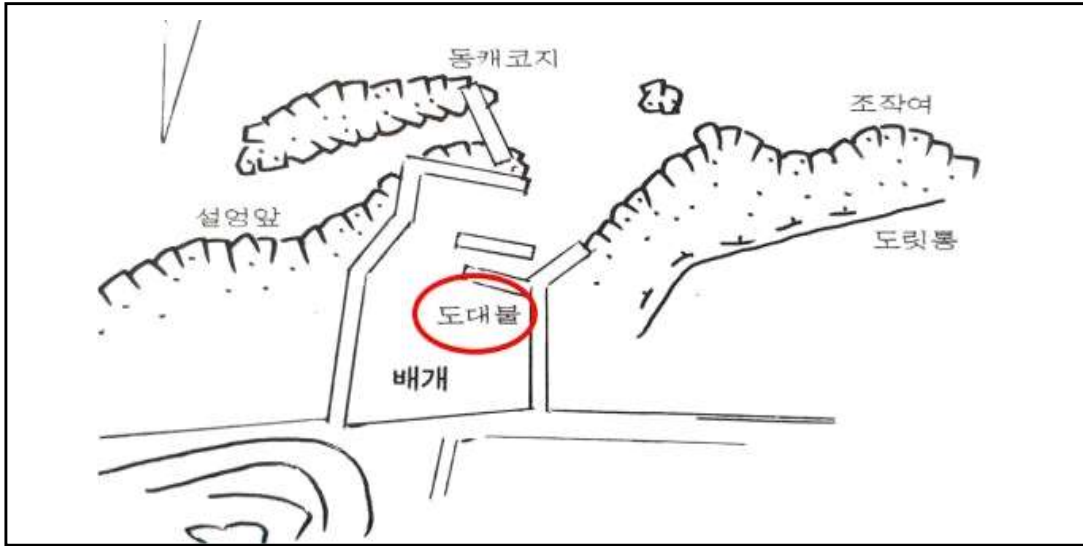
4) 보목동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보목동 포구의 이름은 <그림 28> 에서 보듯 ‘배개’이다. ‘배개’는 동캐코지와 조작여가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제주 포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배개는 배를 묶는 포구라는 뜻의 ‘배드린개³⁷⁾’라고도 한다. <그림 29> 의 포구 전경 속에서 안캐와 중캐사이에 도대불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5) 이덕희(1997), 앞의 책, p.123.

36) 한국전력공사(2004), 앞의 책, p.289.

37) 좌승훈(1996), 앞의 책, p.365.



〈그림 28〉 보목동 배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365.



〈그림 29〉 보목동 배개 포구 전경
출처: 강영봉(2008), p.138.

1937년 축항을 하면서 만들어진 도대불은 〈그림 30〉 과 같이 사각형의 기단 위에 등탑 본체는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는 육면체의 형태이다. 본체 하부에서 넓게 시작된 완만한 곡선은 투박하지만, 안정감을 주고 있다. 본체 중간부에 비

어 있는 공간은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지만, 등화에 필요한 도구를 보관해 두었던 장소로 추정된다. 등롱 기단만 있고 등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도대불이다.



〈그림 30〉 보목동 도대불 전경(1)

출처: 이덕희(1997), p.67.



〈그림 31〉 보목동 도대불 전경(2)

출처: 2019년 4월 연구자 촬영.

〈표 9〉 조사시점의 보목동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길이)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하단	지붕				
사각형	사다리꼴형	185	185	80	135	95	90	55	167	65	45 ~ 55

출처: 현지조사(2019. 4)에 의해 작성.

도대불의 규모는 〈표 9〉에서 보듯 폭이 185cm이고 높이가 55cm인 기단 위에 높이 167cm의 등탑 본체로 만들어져 있다. 그 위에 있는 등롱 기단은 높이가 13cm이다.

“1964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³⁸⁾라고 했는데 제주에서의 전기 공급을 위한 전화사업이 시작한 해가 1965년³⁹⁾이다. 따라서 1964년은 정

38) 이덕희(1997), 앞의 책, p.125.

39) 한국전력공사(2004), 앞의 책, p.270.

확한 연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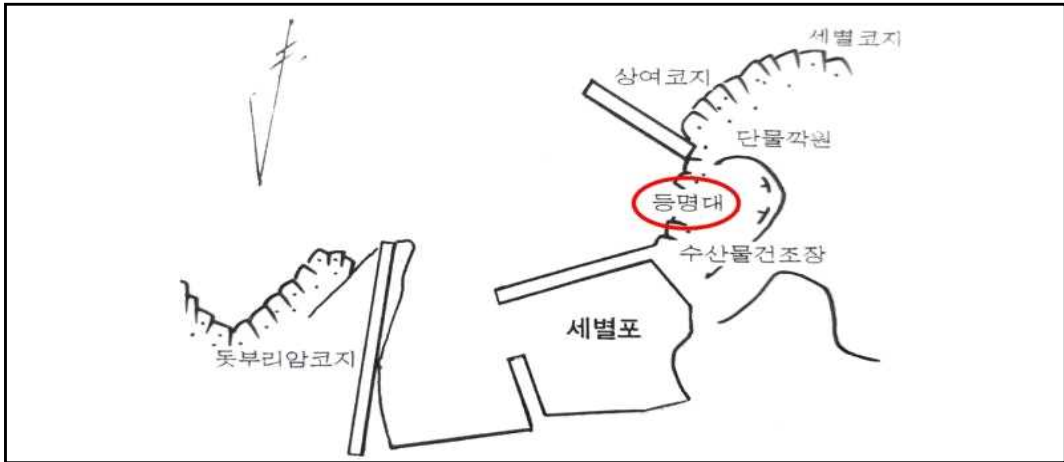


〈그림 32〉 보목동 포구 전경
출처: 2019년 4월 연구자 촬영.

보목리 포구는 현재까지도 ‘태우 어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태우 만드는 놀이와 자리돔 축제 행사가 열리고 곳이다. 그래서인지 포구에는 정자와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0년대의 〈그림 30〉 처럼 포구에 우뚝 서서 포구를 알려주는 위치였으나, 이제는 중심점에서 벗어나서 〈그림 32〉 처럼 도대불의 의미까지 잃고 시설물에 가려져 하나의 조형물로서 있는 모습이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등탑 본체와 등룽이 조화롭지 않게 복원되어 있으며, 또 본체 몸통에는 전등을 밝힐 목적으로 전선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강정동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강정동 포구의 이름은 〈그림 33〉에서 보듯이 ‘세별포’이다. 세별코지의 이름을 따왔다는 ‘세별포’는 돛부리암코지와 상여코지가 감싸고 있으며 안개·중개·밖개로 나뉜 제주의 전형적인 포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포구 오른쪽 상여코지에 등명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33〉 강정동 세별포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357.

강정 주민들은 세별코지 주변에서 해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그림 34〉 과같이 돌탑을 쌓고 그 위에 등을 달 수 있는 시설⁴⁰⁾을 갖춰 놓았으며, 이름을 등명대⁴¹⁾라고 불렀다. 세상과 이별한다는 잘못된 해석과 함께 해난사고의 여파로 포구의 이름이 ‘영주포’⁴²⁾로 바뀌게 되었다. 규모나 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는 도대불이다. 한라일보에서는 “향토강정이란 강정마을 포구 머리에 있었던 등대의 이름으로 환해장성의 마지막에 등명대의 철재 잔해가 보인다.”라고 기사를 작성하였는데⁴³⁾ 환해장성과 철재 잔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이덕희(1997)는 50m 길이의 담장⁴⁴⁾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림 34〉 강정동 도대불 전경

출처: 이덕희(1997), p.127.

현장 답사로 포구를 방문하여 어촌계라고 간판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등명대

40) 좌승훈(1996), 앞의 책, p.357.

41) 이덕희(1997), 앞의 책, p.126.

42) 좌승훈(1996), 위의 책, p.357.

43) 진선희, 2010. 3. 5. 일자.

44) 이덕희(1997), 위의 책, p.126.

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정확하게 모른다고 거절해 도대불의 자취를 찾지 못했다. <그림 35> 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강정 포구의 모습이며, 도대불이 있었던 위치를 추정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35> 조사시점의 강정동 포구 전경
출처: 2021년 4월 연구자 촬영.

6) 대포동 도대불



<그림 36> 대포동 큰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343.

도대불이 있는 대포동 포구의 이름은 <그림 36>에서 보듯이 ‘큰개’이다. 옛 지명이 큰개물인데 포구의 명칭이 지명으로 된 곳이다. ‘큰개’는 체비낭개동산에서 뺏어 나간 두리여·모살업개와 대수배기동산에서 뺏어 나간 자장코지가 동서로 감싸고 있다. 전형적인 포구 형식으로 안개·중개·밖개로 나누어져 있다. 포구의 왼쪽 언덕 소나무 숲에 도대불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37> 대포동 도대불 전경
출처: 2019년 4월 연구자 촬영.

<표 10>과 같이 도대불은 테를 두른 듯한 기단 위에 등탑 본체가 축조되었다. 정사각형의 평면에 길이가 125cm인데 높이가 240cm로 축조한 등탑 본체는 <그림 37>처럼 하부에서 올라가면서 잘록한 허리를 만들고 같은 폭으로 상부를 마감하여 등탑의 하부 길이가 높이에 비교해 짧아서 가름하면서 가냘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체 상부에는 불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1942년에 축조되었으나 정확한 이유 없이 불은 밝히지 않았다⁴⁵⁾고 한다. 도대불은 지금도 소나무숲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 10> 조사시점의 대포동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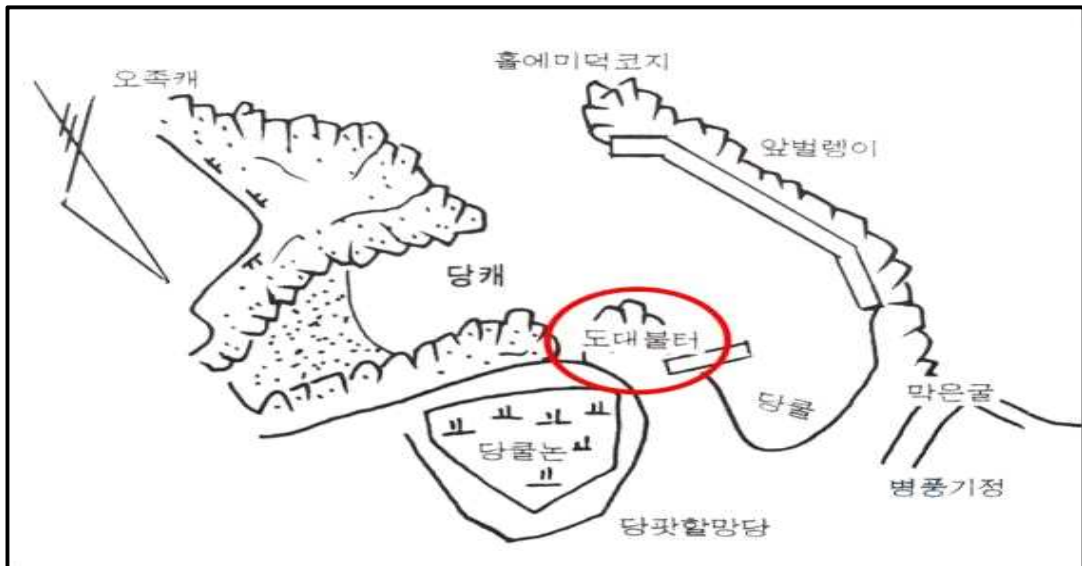
형태		규모(길이)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유무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사각형	사다리꼴형	150		60	125			10	240		무

출처: 현지조사(2019. 4)에 의해 작성.

45) 이덕희(1997), 앞의 책, p.129.

7) 대평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대평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38> 에서 보듯이 ‘당캐’이다. ‘당캐’는 홀에미덕코지가 뺏어 나가 만든 앞벌렁이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포구이다. ‘당캐’는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드나들었던 포구라는 뜻이다. 도대불은 당캐 오른쪽 해안의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림 38> 대평리 당캐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454.

<그림 39> 와 같이 도대불은 평면으로 원형이며 입면은 사다리꼴 원통형의 모습이다. 원통형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잘록한 허리의 곡선은 세련된 자태이다. 그 자태 때문인지, 도대불 형태 분류에 있어 표주박형, 침성대형, 도자기형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도대불이다. 대평리는 병풍처럼 이어진 앞벌렁이 절벽과 함께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도대불은 포구의 자연경관 속에서 조형물로 우뚝 서 있다. <그림 40> 은 현장 답사 때 대평리 포구에서 만났던 강○주(남)씨가 전송해준 사진 자료다. 기존 문헌에서 볼 수 없었던 사진 자료로서 촬영 당시 당캐 포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9〉 대평리 도대불 전경(1)
출처: 강영봉(2008), p.149.



〈그림 40〉 대평리 도대불 전경(2)
출처: 강○주(남, 주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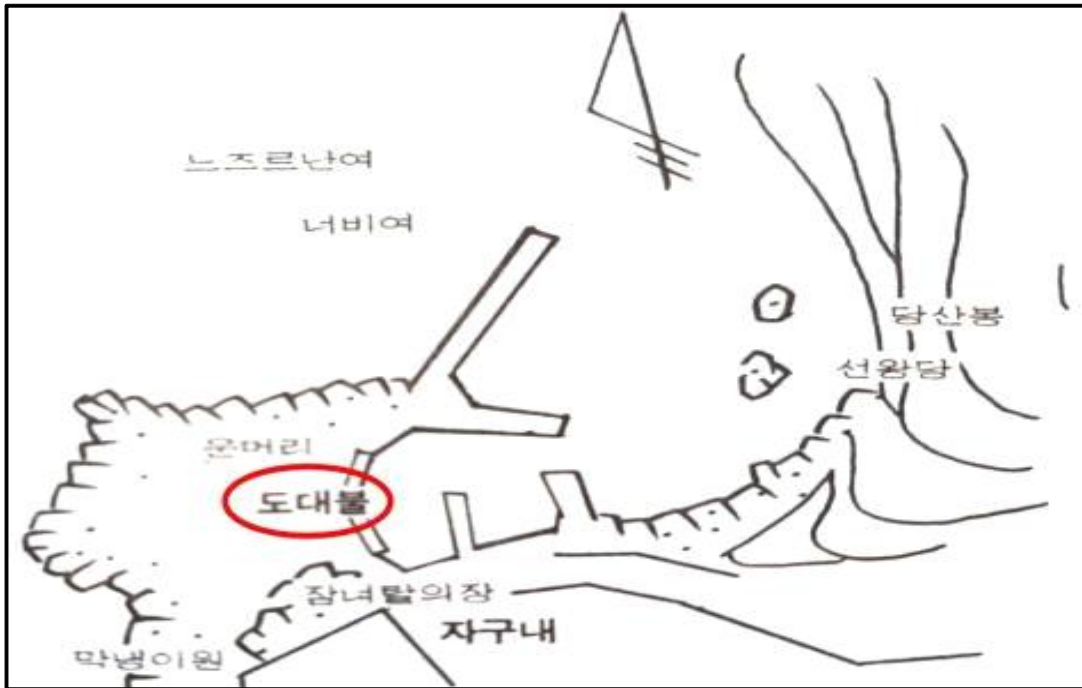


〈그림 41〉 대평리 도대불 위치(터)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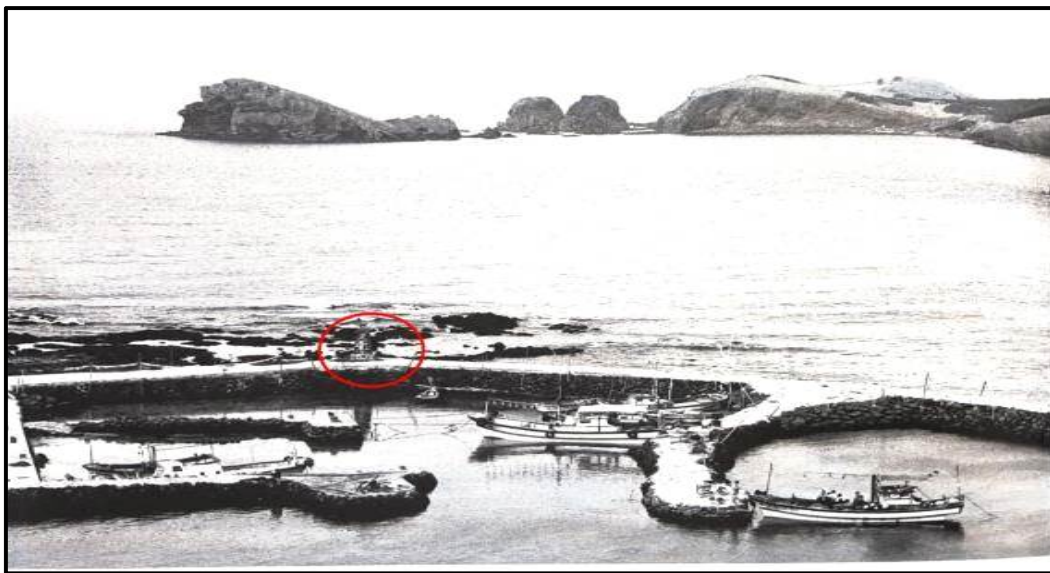
대평리 도대불은 기능을 잃고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림 41〉 속에 있는 전신주의 위치는 강○주(남)씨가 알려준 장소로 도대불이 있는 자리라고 말해준 지점이다.

8) 고산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고산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42〉에서 보듯이 ‘자구내’이다. ‘자구내’는 차귀에 있는 하천이란 뜻으로 ‘차꿇내’가 ‘자구내’로 변해 불려지게 되었다. 자구내 포구는 운머리에서 뻗어 나간 느즈르난여와 너비여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전형적인 포구이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안개의 방과제 위에 도대불이 자리 잡고 있다. 자구내 앞에 있는 차귀도는 낙조로 유명한 곳이다.



〈그림 42〉 고산리 자구내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291.



〈그림 43〉 고산리 자구내 포구 전경
출처: 강영봉(2008), p.116.

고산리 도대불은 해안의 암반 위에 기초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표 11> 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높이 47cm와 폭 195cm인 등탑 기단을 조성한 후 등탑 하부 길이 113cm에 높이 216cm로 올라가면서 점점 폭을 좁혀 쌓아 등탑 본체의 상부를 67cm로 축조하였다. 고산리 도대불은 등탑 본체 위에 2단의 등롱 기단과 등롱, 등롱 지붕으로 완전한 구조 형태를 갖춘 도대불이다. 축조연도에서는 복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이 1931년 이전으로 보고 있으나, 제주문화원(2008)은 1941년에 축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와 고산 간의 목포 화물선을 취급할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주문화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조사시점의 고산리 도대불의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유무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사각형	사다리꼴형	178	195	67	113	61	61	47	216	91	무
				~	~	~	~	~	~		
				93	127	114	182	60	230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고산리 도대불은 <그림 44> 와 같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대불 중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등탑의 기단부와 기단을 받치기 위해 쌓아 올린 단을 시멘트로 보수한 것 이외는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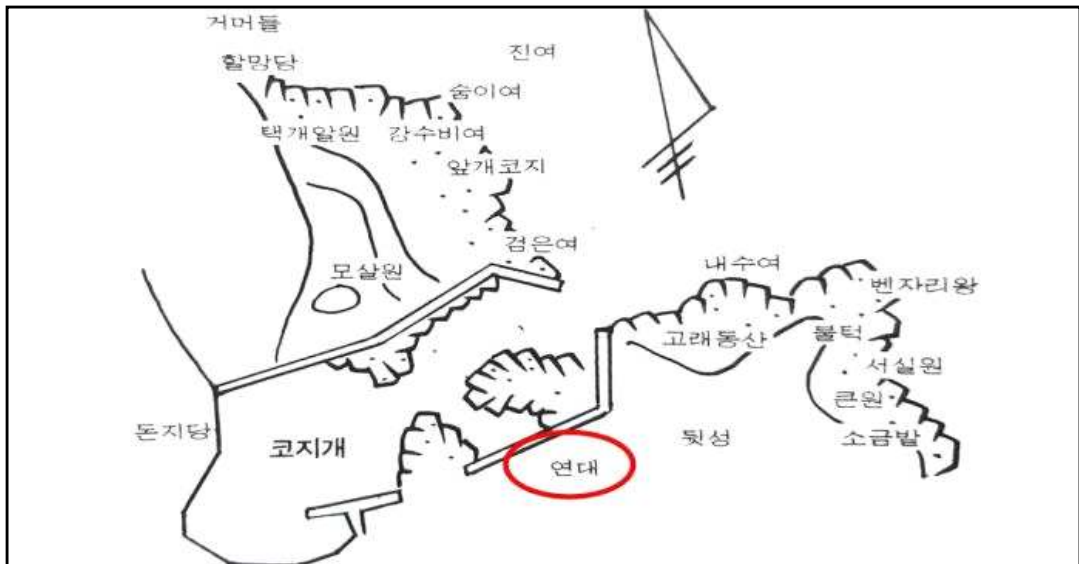


<그림 44> 고산리 도대불 전경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9) 두모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두모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45> 에서 보듯이 ‘코지개’이다. ‘코지개’는 앞개코지에서 이어지는 검은여와 고래동산에서 뻗어 나온 내수여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포구다. 포구의 오른쪽에 연대가 있다. 두모리 도대불은 연대 위에 축조된 도대불이다.



<그림 45> 두모리 코지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273.



<그림 46> 두모리 도대불 전경(1)

출처: 이덕희(1997), p.85.

<그림 47> 두모리 도대불 전경(2)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두모리 도대불은 <그림 46> 과 같이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등탑 본체는 사각

형으로 하부 길이 143cm로 높이 234cm를 좁혀 쌓아 상단이 108cm⁴⁶⁾인 사다리형의 육면체이다. 본체 몸통에 있는 선은 허리 부분에서 좁아지는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완만한 곡선은 투박하지만,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지금은 <그림 47> 과 같이 재축조되어 도대불이 가지고 있던 완만한 곡선은 확인할 수가 없다.

두모리 도대불이 지닌 특성은 연대 위에 도대불을 세웠다는 점이다. 연대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재축조된 도대불에서는 역사성을 볼 수 없으며 옛 도대불이 보여주었던 안정감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 12> 는 복원된 도대불의 규모와 크기를 실측하여 작성한 것 표이다.

<표 12> 조사시점의 두모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사각형	사다리꼴형	385 ~ 460		110 ~ 130	145			170	245		140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10) 귀덕리 도대불



<그림 48> 귀덕리 진질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80.

46)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07.

도대불이 있는 귀덕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48〉에서 보듯이 ‘진질개’이다. ‘진질개’의 진질은 긴 길이라는 뜻이다. 호랑이가 누워있는 지세의 귀덕리⁴⁷⁾에서 진질은 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호랑이가 포효하듯 일 년 내내 바람이 많은 곳이다. 진질개는 분동산에서 이어지는 진질코지와 검은여로 감싸아진 형태로 전형적인 제주 포구로 안개·중개·밖개로 구성되어 있다. 도대불은 안개의 안쪽 선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귀덕리 도대불은 〈그림 49〉와 같이 평면이 원형으로 지름이 449cm로 시작하여 방사탑처럼 축조하여 상부는 지름이 368cm이고 높이가 256cm⁴⁸⁾인 사다리꼴 원통형이다. 중심부에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현재 도대불은 〈그림 50〉와 같이 방파제 위에 걸쳐져 있으며 등탑 본체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 조사된 도대불의 크기와 규모는 〈표 1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실측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49〉 귀덕리 도대불 전경(1)
출처: 강영봉(2008), p.99.

〈그림 50〉 귀덕리 도대불 전경(2)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표 13〉 조사시점의 귀덕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길이)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원형	사다리꼴			330	470				230		95
	형			~ 360	~ 540				~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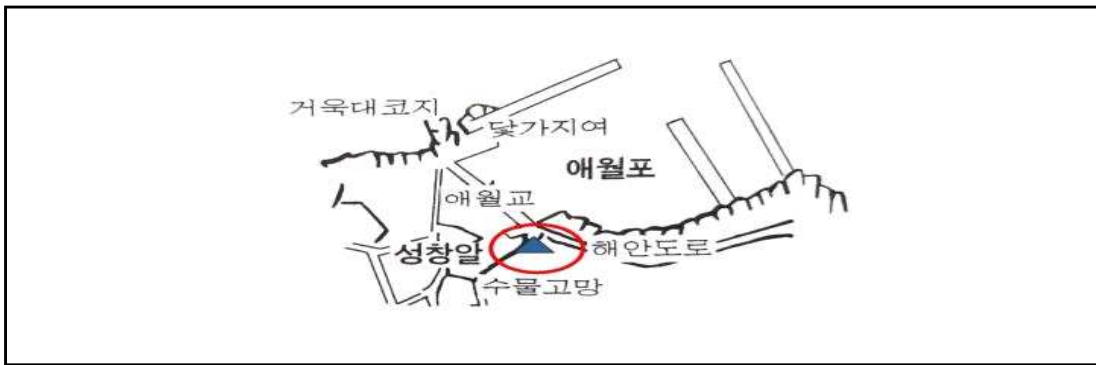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47) 좌승훈(1996), 앞의 책, p.180.

48)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08.

11) 애월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애월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51> 에서 보듯이 ‘애월포’이다. ‘애월포’는 거육대코지에서 이어진 닻가지여가 감싸고 있고 전형적인 포구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해안도로는 1993년 5월경⁴⁹⁾에 개설되었고 도대불은 1990년대 말까지는 도로로 막힌 안쪽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그림 51> 애월리 애월포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63.



<그림 52> 애월리 애월포 포구 전경
출처: 강영봉(2008), p.94.

49) 좌승훈(1996), 앞의 책, p.163.

해안도로가 개설되기 전인 〈그림 52〉에서는 우뚝 서 있는 도대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대불은 〈그림 53〉과 같이 해안 암반 위에 등탑 기반 없이 등탑 본체가 사각 평면으로 하부의 길이 142cm로 시작해서 허리 부분까지 좁혀 쌓아 올라가다가 상단까지는 같은 폭인 116cm⁵⁰⁾로 축조하였다. 허리까지의 잘록한 곡선은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안정감과 균형미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3〉 애월리 도대불 전경(1)
출처: 강영봉(2008), p.95.

〈그림 54〉 애월리 도대불 전경(2)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현재는 옛 도대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그림 54〉와 같이 복원되어 있다. 잘록한 허리의 선은 사라지고 플라스틱 창호로 복원시킨 등롱의 모습에서 이질적인 경관을 표출하고 있다. 〈표 14〉의 애월리 도대불 제원표는 복원된 도대불을 실측하여 작성한 표이다.

〈표 14〉 조사시점의 애월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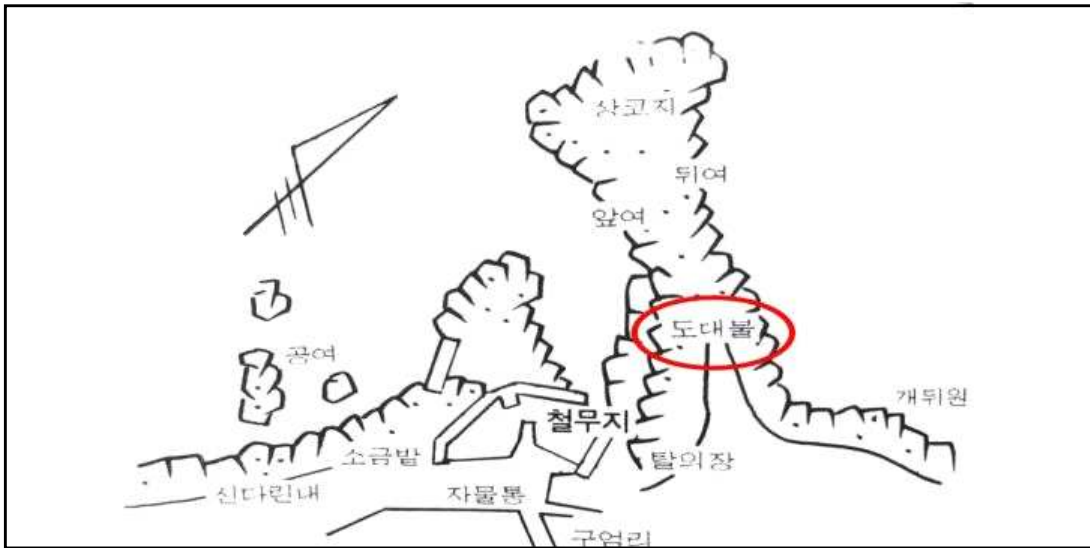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하단	지붕				
사각형	사다리꼴형	500	500	150	200	90	125	70 ~ 100	300	67	65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50) 복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09.

12) 구엄리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구엄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55> 에서 보듯이 ‘철무지’이다. ‘철무지’는 상코지에서 이어진 앞여로 둘러싸여 있다. ‘철무지’는 포구가 협소하고 앞여로 인해 바닥이 암반층이라서 간만의 시기(철)를 숙지하지 않을 때(무지:無知)는 포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⁵¹⁾이다. 철무지 오른쪽 암반 위에 철재로 만든 도대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림 55> 구엄리 철무지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48.



<그림 56> 구엄리 도대불 전경(1)

출처: 이덕희(1997), p.141.



<그림 57> 구엄리 도대불 전경(2)

출처: 2019년 5월 연구자 촬영.

51) 좌승훈(1996), 앞의 책, p.148.

구엄리 도대불은 <그림 56> 과 같이 1990년대 말까지는 등탑 기단은 정사각형 평면으로 2단으로 아랫단은 넓이가 310cm이고 상단은 197cm이며 기단의 총 높이는 165cm였다. 상단 중앙에 있는 등탑 본체는 높이 185cm의 철제 탑⁵²⁾으로 축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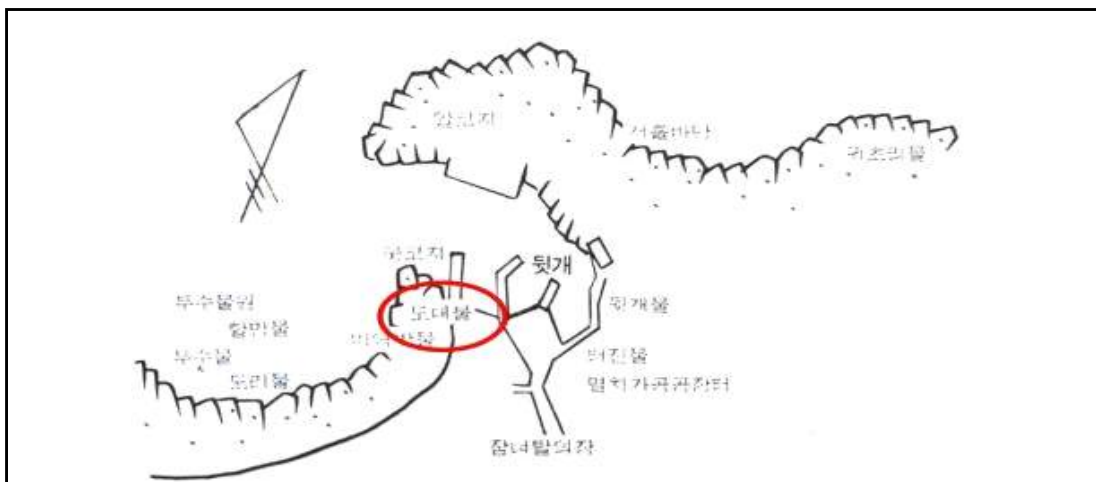
2019년 시점에서는 옛 도대불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그림 57> 와 같이 옛 도대불의 모습과 다른 상태로 복원되어 세워져 있다. <표 15> 의 제원표는 복원된 도대불의 규모와 크기를 실측하여 작성한 표이다.

<표 15> 조사시점의 구엄리 도대불 제원(2019) (단위: cm)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폭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지붕	하단				
원형	사다리꼴형			지름 150	지름 300	80	60		220~280	85	70 ~ 95

출처: 현지조사(2019. 5)에 의해 작성.

13) 하귀리 도대불



<그림 58> 하귀2리 뒗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43.

52)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10.

도대불이 있는 하귀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58〉에서 보듯이 ‘뒷개’이다. ‘뒷개’는 알코지와 못코지가 감싸고 있어 안개·중개·밖개로 구성된 전형적인 제주 포구이며 북촌리와 같이 마을 뒤횥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포구 입구 못코지 암반 위에 철재로 만들어진 도대불이 서 있었다.

하귀리 도대불은 〈그림 59〉와 같이 등탑 기단은 사각형 평면으로 하부의 넓이가 160cm이고 상부는 146cm인 육면체로 축조되었으며 기단의 높이는 140cm였다. 기단 중앙에 있는 등탑 본체는 높이 190cm의 철제 탑⁵³⁾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그림 60〉과 같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옛 도대불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답사할 때에 만났던 조○규(1966년생, 남)는 도대불이 있던 자리가 15년 전에 마을에서 팔각정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후에 도대불이 있던 자리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정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림 59〉 하귀리 도대불 전경

〈그림 60〉 하귀리 도대불 위치(터)

출처:복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p.310.

출처: 2019년 6월 연구자 촬영.

14) 외도동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외도동 포구의 이름은 〈그림 61〉에서 보듯이 ‘너븐여개’이다. ‘너븐여개’는 넓은빌레의 줄기를 타고 있으며 연대코지와 독수코지가 둘러싸여서 만들어진 포구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외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가 있어 ‘연대개’⁵⁴⁾라고도 한다. 도대불은 포구 뒤횥에 있는 연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53) 복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11.

54) 좌승훈(1996), 앞의 책, p.99.



〈그림 61〉 외도동 너븐여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99.

외도동 도대불은 연대위에 축조되었다가 〈그림 62〉와 같이 망루대(노인정)로 세 번씩 용도가 변경⁵⁵⁾되어 이용되었다. 현재는 〈그림 63〉처럼 연대가 새롭게 복원되었고 도대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림 62〉 외도동 도대불 전경

출처: 이덕희(1997), p.113.



〈그림 63〉 외도동 복원 연대

출처: 2021년 4월 연구자 촬영.

15) 용담동 도대불

도대불이 있는 용담동 포구의 이름은 〈그림 64〉에서 보듯이 ‘다끈개’이다. ‘다끈개’는 인근의 갯가를 정(釘)으로 다듬으며 포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뚫은개⁵⁶⁾란

55) 이덕희(1997), 앞의 책, p.113.

이름이 붙었다. 다끈개에는 <그림 65> 에서 보듯이 2개의 도대불 있었다. 방과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위에 사다리꼴 육면체인 도대불과 방과제의 끝에 원뿔형의 도대불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림 64> 용담동 다끈개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77.



<그림 65> 용담동 도대불 전경(1)
출처: 강영봉(2008), p.79.

<그림 66> 용담동 도대불 전경(2)
출처: 2021년 4월 연구자 촬영.

현재는 <그림 66> 에서 보듯이 방과제 안쪽에 있는 육면체 형 도대불은 사라지고 방과제의 끝에 있던 원뿔형의 도대불도 재축조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56) 좌승훈(1996), 앞의 책, p.77.

덕희(1997)는 1970년 전까지는 남포불을 썼다고 하였으나, 용담동은 제주의 전화 사업으로 1965년 6월⁵⁷⁾에 전기를 사용한 최초의 마을이다. 따라서 1970년까지 도대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6〉은 현재 다끈개 포구의 방과제 끝에 재축조되어 있는 원뿔형 도대불의 제원을 나타낸 것으로, 기단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등탑 본체 측면에서 보이는 완만한 곡선과 상부를 둥그렇게 복원한 것은 옛 도대불의 모습과 이미지에 있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표 16〉 조사시점의 용담동 도대불 제원(2021) (단위: cm)

형태		규모						높이			계단
평면	입면	기단		본체		등롱		기단	본체	등롱	유무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원형	삼각 원뿔 꼴형	지름 480			지름 350			30	320		무

출처: 현지조사(2021. 4)에 의해 작성.

16) 신촌리 도대불



〈그림 67〉 신촌리 큰물성창 포구 위치도

출처: 좌승훈(1996), p.105.

57) 한국전력공사(2004), 앞의 책, p.271.

도대불이 있는 신촌리 포구의 이름은 <그림 67>에서 보듯이 ‘큰물선창’이다. ‘큰물선창’은 물이 많이 난다는 의미이며, ‘큰물’은 신촌리 마을의 상징인 동시에 정신적인 지주로도 자리하고 있다. 포구의 버팀목은 남당알과 바랑알이다. 남당알은 큰물선창과 남당포의 경계⁵⁸⁾가 되고 있는데 도대불은 남당알 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신촌리 주민들은 망루대⁵⁹⁾라고 불렀다.

신촌리 도대불은 <그림 68>에서 보듯 등탑의 기단이 큰 원형으로 지름 630cm로 축조되어 있고 그 위에 사다리꼴 육면체로 상단 길이가 160cm이고 기단부터 전체 높이가 380cm⁶⁰⁾로 축조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기단을 올라가는 계단과 등탑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을 밝히는 등롱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은 북촌리 도대불처럼 등탑 본체 한쪽면에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68> 신촌리 도대불 전경
출처: 강영봉(2008), p.49.

<그림 69> 신촌리 도대불 위치(터)
출처: 2019년 11월 연구자 촬영.

현장 답사 시에 만났던 한○삼(1961년생, 남)씨는 도대불이 있었던 위치를 안내해주었으며 포구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놓았다고 했다. <그림 69>처럼 남당알과 바랑알을 연결한 다리의 기초에 도대불 기단의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아직도 기단을 올라갈 때 사용했던 계단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58) 좌승훈(1996), 앞의 책, p.105.

59) 이덕희(1997), 앞의 책, p.117.

60)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앞의 논문, p.312.

IV. 제주 도대불의 활용 방안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유산 정책에 있어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⁶¹⁾

제주 도대불의 활용 방안을 논하기 전에 선행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도대불의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이다. 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여러 단체 즉 어촌계, 해녀 공동체 등 마을 경제 단체와 전문가 모임, 지역 소재의 대학, 제주 지자체와 교육청 등 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도대불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일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주 도대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고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과거 제주 어부들의 실생활의 핵심적인 자원이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 자원으로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으로는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대불 보존의 역량 강화와 자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해양문화요소로서 도대불의 불빛은 제주 어부들의 배를 안전하게 안내해 준 소통의 빛이었으며 포구에 당도했다는 안도를 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안고 있는 도대불은 앞으로 교육자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주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교육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대불에 대한 심도가 있는 연구와 면밀

61) 최경은·오훈성(2019),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p.11.

한 조사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책자, 정보지, 안내서, 삽화, 스토리텔링,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3D, VR, 파노라마, 동영상 등이 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 해설사와 같은 양성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도대불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의 도대불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제작물과 양성된 전문인력이 구축된 공간에서 도대불의 의미와 가치, 역할을 알리는 문화자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도대불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도대불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1) 도대불 주변 안내판 설치 및 제주공항에 도대불 모형 설치

도대불은 전기가 보급되면서 기능을 잃었고, 이후에 지역 개발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로 복원되어 있다. 도대불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존하고 있는 도대불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도대불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으로부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대불 주변에 설치된 마을 편의시설들은 가급적 이동하여 멀리에서 도대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도대불 앞에는 안내판과 QR code를 설치한다. 직접 볼 수 있는 안내판에는 도대불과 관련된 기본 정보 즉 도대불의 명칭 및 축조연도만을 적어 알 수 있도록 하고 도대불의 역할과 독창성, 다른 도대불에 대한 위치정보 등과 같은 내용은 안내판 모서리에 QR code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연구자가 조사 시 보았던 〈그림 70〉과 같은 아카시항 구등대를 들 수 있다. 구등대는 울타리에 의해 접근할 수 없었으며 등대 앞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안내판의 내용을 통해서 구등대의 역사를 알 수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아카시시 시민들이 구등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존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림 70〉 아카시항 구등대 전경
출처: 2019년 2월 연구자 촬영.

도대불 그 자체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대불을 모르는 관광객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제주공항이라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공항 주차장 모퉁이에는 〈그림 71〉과 같이 보목동 도대불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대불을 알리는 역할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설치된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안은 〈그림 72〉와 같이 고산리 도대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도대불 중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세련된 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등탑 기단과 등탑 본체, 등롱 등 완벽한 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기에 고산리 도대불을 축소



〈그림 71〉 공항 보목동 도대불 모형
출처: 2021년 4월 연구자 촬영.

제작한 모형을 공항에서 나오는 출입구 앞 〈그림 72〉의 HELLO JEJU라는 구역 옆에 설치하여 도대불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모형 앞에는 작은 크기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공항의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아이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공항이라는 장소의 용이성을 활용해 많은 인파가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 제주의 새로운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내판의 내용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관광객이나 간단한 설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내판에 같이 적어둔 QR code를 확인하여 도대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2〉 제주공항 출입구 앞 건너편과 가상의 고산리 도대불 설치 전경
출처: 2021년 4월 촬영에 의해 재구성.

2) 찾아가는 도대불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대불 프로그램이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정보지, 소책자, 3D 영상, VR, PPT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로 양성된 해설사를 다양한 교육

현장으로 보내어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도대불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나 제반여건들이 초반에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협력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초, 중, 고 방과 후 수업이나 특별 수업에 제주문화유산 교육시간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도대불에 대해 더 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나 현직에 종사하는 관광 안내사,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대불에 관한 강좌를 마련하여 도대불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제주에는 도대불이라는 아주 특별한 등대가 있다는 것을 더욱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찾아가는 도대불 프로그램은 3D 입체 영상을 활용해 직접 도대불에 가지 않아도 도대불의 입체적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VR을 활용해 도대불의 불빛에 유도되어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그 당시의 모습을 구현하여 아주 작은 그 도대불의 불빛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입체적 교육은 현재의 추세에 맞춰진 교육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모든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대불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도대불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도대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대불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대불의 정보전달을 통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그에 의해 도대불에 관한 안목이 깊어지며, 나아가 도대불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대불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도대불에 대한 해설과 설명, 체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당시의 어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탐구능력과 그에 따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도대불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당시 어부들의 실생활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제주에 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도대불과 관련된 역사를 통해 제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기회가 될 것이다.

2.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관광 자원으로서 도대불은 단독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문화유산, 낚시, 해수욕, 먹거리, 경치 등을 융합하여 복합적 관광 자원으로 다뤄져야 한다. 먼저 인지도가 낮은 도대불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홍보 활동은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들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대에 맞춰 도대불 전용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거나 혹은 소책자, 정보지, 안내서, 삽화, 스토리텔링, 3D, VR, 동영상 등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해설사의 해설 현장을 촬영하여 유튜브로 연계시키면서 각 나라의 자막을 첨부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볼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도대불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주에 많은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성산 일출봉의 일출과 같은 볼거리,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제주만의 감성, 해안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지는 돌 구르는 소리, 제주 현무암에서 느낄 수 있는 거칠고 투박한 질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불도 오감으로 즐기는 재미와 힐링을 제공해야만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도대불을 머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도대불 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불 투어 코스를 만드는 것이다.

1) ‘도대불 거리’ 만들기

도대불이 있는 마을에는 관광 자원이 빈약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축조되었고 축조연대가 확실한 도대불이 있는 북촌리에 ‘도대불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도대불 거리에는 커다란 유리창문이 있는 카페를 만들어 창문을 통해 제주 해안을 배경으로 서 있는 도대불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메뉴 또한 차별을 두어 도대불의 모양을 딴 디저트나, 시그니처 음료를 판매해 도대불과 관련이 있도록 특색을 준다.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전시관을 건립하여 도대불의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인 솔각과 구진지름, 비근다리지름, 고등어 기름, 상어의 간에서 짠 기름과 같은 생선 기름, 갯물지름인 채유, 석유, 카바이드를 전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인 관솔등, 조막등, 각지등, 남포등, 호룽등, 카바이드등 등을 전시한다.

도대불의 주재료인 현무암으로 본탑 중간부의 모형을 전시하여 현무암의 거칠고 투박함과 우리나라의 전통 층 쌓기 방법도 소개한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도대불의 위치를 표시한 제주도 지도를 그려 놓고 한눈에 도대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도대불에 사용되었던 재료를 이용해서 불을 밝혀보는 체험관과 암흑 속에서 작은 불빛이 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어두운 암실 체험관을 만들어 지루하지 않은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상실을 확보하여 입체영상과 VR을 체험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73〉 도모노우라 상야등 거리

출처: 2019년 2월 연구자 촬영.

도대불 주변에는 광장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도대불의 해설을 듣거나 의자에 앉아 먼바다를 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광장 안에서는 도대불과 해안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한다. 연구자가 조사했던 도모노우라의 도대불 주변 광장이 〈그림 73〉과 같이 카페와 의자만이 있는 광장이었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유를 가지고 도대불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벤치 마킹하여 도대불 주변에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방된 광장의 형태를 띠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도대불 투어 코스

도대불이 위치한 곳이 포구인 만큼 도대불을 관광목적으로 찾는다면 부수적으로 제주 해안의 포구도 즐길 수 있다. 제주도에 올레길과 숲길, 한라산 둘레길, 꽃자왈 탐방로, 지질트레일 등과 같이 걷기와 힐링을 주제로 다양한 코스가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도대불 관광 코스도 걷기와 힐링을 주제로 투어 코스를 구성하되, 여기에 인문학적 요소를 더해 옛 제주 어부들의 실생활과 빛의 소중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마다 도대불과 가까운 포구를 넣는다면 제주 특유의 포구 마을을 지닌 특성 또한 느낄 수 있다. 짧은 여행 기간 제주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것은 힘들지만, 제주 각지에 있는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대불을 연결해 제주 특유의 감성과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한다면, 비슷하지만 다른 도대불의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4가지의 코스를 구성하여 도대불 투어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방어유적이 있는 도대불 코스

애월리 도대불 (애월진성) → 하도리 도대불(별방진성) → 두모리 도대불 (두모리 연대) → 외도동 도대불(외도 연대)

이 코스는 도대불 주변에 있는 제주의 방어유적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해 보았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방어유적은 조선 시대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역사를 느끼는 코스로써 교육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② 포구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대불 코스

대평리 도대불 (박수 기정) → 고산리 도대불 (차귀도 낙조) → 신촌리 도대불(포구 경관)→ 대포동 도대불(주상절리)

이 코스는 도대불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코스이다. 대평리와 대포동 도대불 주변의 주상절리나 고산리 도대불 주변의 차귀도 낙조 경관, 신촌리 도대불에서 포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자연을 좋아하는 연령층이 높은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아이들과 체험하며 놀 수 있는 도대불 코스

하귀리 도대불(용천수/미수) → 구엄리 도대불(소금밭) → 귀덕리 도대불(해녀학교) → 보목동 도대불(자리돔 축제) → 김녕리 도대불(해수욕장)

이 코스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코스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변 지구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도대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내용과 제주의 특징들을 살린 코스로 남녀노소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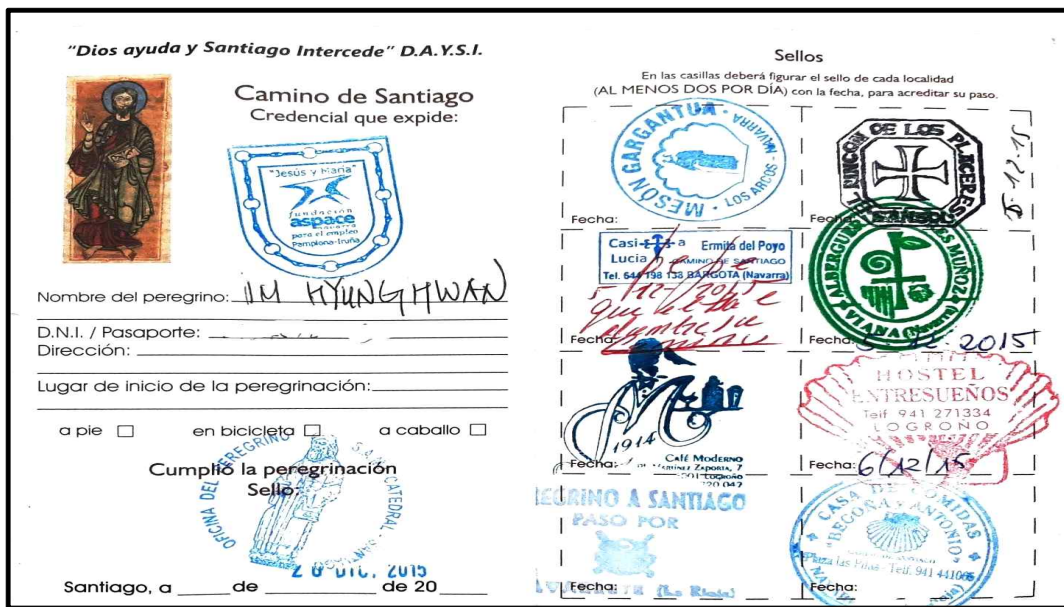
④ 제주의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는 도대불 코스

용담동 도대불(제주공항 확장) → 북촌리 도대불(4·3사건) → 강정동 도대불(해군 기지)

이 코스는 제주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여러 토픽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코스이다. 4·3사건, 제주공항 확장, 해군 기지 등 근·현대의 사회적 이슈들을 도대불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대불 투어를 더욱 심도 있게 즐기는 방법으로 스탬프 투어를 부가적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도대불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카페, 음식점 등에 각각 고유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스탬프를 준비하여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스탬프를 준비된 스탬프 북에 찍어 머물렀던 장소를 기록하는 하나의 추억거리를 선물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탬프 투어가 성공한 사례로써 <그림 74> 와 같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들 수 있다. 이 스탬프 북에는 잠을 잤던 곳, 커피를 마셨던 곳, 음식을 먹었던 곳, 관광했던 성당과 방문했던 시청의 스탬프 등을 찍어 추억을 기록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순례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하나의 관광 코스를 추억하는 데에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



<그림 74> 산티아고 순례길 스탬프 북

출처: 2021년 4월 연구자 촬영.

도대불 스탬프 투어는 도대불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탬프 북에 적혀져 있는 여러 장소를 보고 지정된 코스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장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정보전달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며, 아이들이 직접 도장을 찍으면서

관광할 수 있기에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더불어 스탬프 북 안에 도대불 각각의 설명을 넣어준다면, 스탬프 북이라는 하나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책자로서의 책자를 놓기 어려운 도대불의 정보전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스탬프 북을 완성하여 특정 장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도대불과 관련된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도대불 투어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하나의 이벤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불과 연관된 여러 관광 장소들이 적혀져 있으므로 주변 카페나 음식점의 부흥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대불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을 통해 도대불을 보존하려는 데에 있다. 도대불 거리를 조성하고 도대불 투어 안을 제시하는 것은 도대불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동안 보존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던 도대불이 더 이상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도 도대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변 마을이 개발되어 주민들의 수입이 늘고 고용이 창출되면 이를 다시 도대불을 보호 유지시키는 데에 활용해 후세까지도 도대불의 빛이 남아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도대불과 관련된 연구물은 이덕희(1997)의 연구를 비롯하여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및 제주문화원(2008)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도대불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만큼 연구물의 수 또한 현저히 적기에 본 연구자는 도대불의 외형적인 특성과 축조연도, 포구에서의 위치, 일본의 옛 등대와 비교, 등대의 역할 종료 시점을 파악하고, 도대불의 잔존 형태와 상태에 관해서 연구함으로써 도대불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도대불의 활용방안은 4가지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얻은 제주 도대불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제주 도대불의 형태적인 고유성이다. 도대불은 마을마다 각각의 환경에 맞게 마을 주민 중 특히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축조되었다. 돌을 쌓는 일에 있어 어부들은 비전문가였기에 만들어진 모습과 형태에 있어 모든 도대불이 일정하지 않고 각기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도대불의 고유성이 도대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며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게 한다.

두 번째는, 제주만의 신호유적이라는 유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등대사에 있어 단순하면서 초보적인 기능만으로 등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부들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등대인 만큼 등대 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만한 가치가 있다. 작은 불빛만으로 고유의 항로 표지의 기능을 해왔다는 것은 도대불이 등대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며 제주의 신호유적이라는 유일성 또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인문 경관 요소로서의 가치이다. 도대불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을 그대로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칠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혹독한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왔던 제주 어부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닌 제주의 지역자원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그 투박한 아름다움은 하나의 경관 요소로서 소박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면 도대불은 관광 자원으로서 더욱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실생활에 맞게 만들어진 기능성이다. 어두운 바다에서 어부들이 야간에 어로 활동을 하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실생활 기준으로 만들어진 간결한 기능성으로 인해 도대불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으며 마을 주민들의 지혜 또한 엿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양유산인 도대불의 잔존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구자가 알게 되었던 사실은 그동안 도대불을 복원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원형에 대한 고증도 없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보목동 도대불은 잘 보존된 등탑 본체에 아무런 고증 없이 등룡을 만들어 놓았으며, 두모리 도대불은 연대와 동떨어진 곳에 복원하였고, 구엄리 도대불은 완전하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축조되었다. 심지어 애월리 도대불은 등룡의 창문을 복원할 때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복원은 도대불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고 관광객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며, 후대로 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 마을의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증 없는 복원으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후세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제주 특유의 가치를 활용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각각 2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도대불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도대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으로는 도대불 주변 안내판 설치 및 제주공항 출입구 앞에 도대불 모형을 설치하는 안과 찾아가는 도대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으로는 도대불 거리 만들기, 도대불 투어 코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도대불 투어 코스에는 스탬프 북이라는 방법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주제로 구성된 투어 코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도대불의 잔존 현황을 바탕으로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

하고 도대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의 이해를 통해 더 이상 도대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활용방안을 통해 한층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남겨주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도대불처럼 사라져가는 가는 근·현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미래유산 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주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미래유산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인 도대불이 미래유산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대불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가 이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參考文獻)

1. 단행본

- 강영봉(2008), 『기억속의 제주포구』, 제주사람들.
- 고광민(2003), 『濟州島浦口研究』, 세림원색인쇄사.
- 김유정(2012),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 김태일(2018), 『제주 근대건축 산책』, 루아크.
- 김태일(2018), 『제주 속 건축』, ㈜안그래픽스.
- 이덕희(1997), 『제주의 도대불』, 가시아히.
- 이운형·고광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 정광중·장성기(2020), 『제주 돌문화경관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한그루.
- 주강현(2015), 『등대 문화사 천년의 역사 빛의 지문』, 향로표지기술협회 국립등대박물관.
- 주강현 외 (2013), 『제주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7),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경신인쇄사.
- 좌승훈(1996), 『포구 제주땅 의미찾기』, 나라출판.
- 최경은·오훈성(2019),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디자인어백플러스.
- 한국전력공사(2004), 『濟州電氣 77年 濟州道電力史』,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2. 논문류

- 강미자(2011),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7.

- 강창언(2006), 「등대의 기원 제주 도대불」, 『어항어장』, 봄호.
- 고희주(2003), 「제주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 류정수(2000), 「지역문화재의 교육적 활용방안」,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박성현·김병섭(2018), 「도서지역 문화재의 분포 특성과 관광적 활용방향 모색」, 『한국 지적정보학회지』, 20-3.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선사·역사)』, 북제주군.
- 이창근(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예술경영연구』, 35.
- 전해식(2005), 「우리나라 근대기 등대건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배제대학교.
- 정광중(2017), 「제주의 돌문화」, 『제주학개론』,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 정광중·장성기(2013), 「장소자산으로서 제주 돌담의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16-1.
- 정을경(2019), 「충남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국학연구』, 40.
- 제주문화원(2008), 「제주시 옛 등대 애월리 배무송이 소금밭 조사보고서」, 제주문화원.
- 좌혜경·정광중(2013), 「제주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제주학연구 6』, 제주발전연구원.
- 천진기(200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중앙민속학』, 14-5.

3. 기타자료

- 『한라일보』, 2010년 3월 5일자.
- 전주시(<https://www.jeonju.go.kr>)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ju.go.kr>)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Abstract

Jeju Todaebuls were the lights for fishermen which led and relieved fishermen to arrive safely on the land. So Jeju Todaebuls were the lights of communication and hop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method to preserve Todaebul not to be vanished.

I tried to figure out the location from a harbor, comparing with Japanese old light houses, expiring year of the light house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Jeju Todaebuls in order to enhance the value of them. I also research th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follow, so there are the result of the research below.

First, It is an uniqueness of shape. The Todaebuls were built by the villagers, especially the fishermen fitting to the environment of each village. Since it was a work of stacking stones, the shape and figures of the Todaebuls were not uniform.

Second, Jeju is the only place that has Todaebuls as a signal relic. It played its role only with simple and rudimentary functions, however, it has a high vale because they were built for the fishermen's necessary.

Third, It is the value for elements of humanity landscape. Todaebuls have a rough and bumpy appearance because it is built up of basalt rocks that were from volcanos. In this appearance we are able to feel the hard life of Jeju fishermen who lived against rough seas.

Fourth, It is a functionality fitting to the real life. The Jeju Todaebuls were made by fishermen to work at night in the dark sea, so unnecessary parts were removed.

So, I research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odaebuls as marine assets as well as suggesting how to utilize the Jeju Todaebuls as educational material and resources of tourism.

The value of Todaebuls is reminded to extend the approach through the method of utilization. And base on the remaining status the value and meaning were passed to preserve and utilize in order to inherit to next generations.

By recognizing the value of the Todaebuls through the utilization plan, the accessibility to the Todaebuls has extended. stepping stones have been prepared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odaebul and leave to the future generations by conveying the value and meaning of them.

Although other local governments are proceeding to preserve modern cultural heritages that are disappearing like Jeju Todaebul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n't yet implemented the policy. So, it is expected that future heritage policy will be adopted and implemen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 that the Todaebuls will be reflected as a cultural heritages to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s.

Keywords: Todaebul, Uniqueness, Functionality, Value of landscape, Preservation, Educational·touristic utilization, Future heritage